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정답과 해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34~157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⑤
21 ⑤	22 ③	23 ①	24 ②	25 ④
26 ⑤	27 ③	28 ④	29 ⑤	30 ④
31 ④	32 ⑤	33 ⑤	34 ③	35 ③
36 ②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③	42 ⑤	43 ⑤	44 ⑤	45 ③

[01~03] 화법

01 면접 평가자의 말하기 전략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면접자의 질문에는 동아리 창작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질문이 없었고 지원자의 대답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혹시 우리 동아리가 올해 어떤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라는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③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기획, 연출, 영상 편집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④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⑤ 면접자의 마지막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02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지원자의 답변에 가벼운 농담으로 화제를 돌리며 질문을 이어 가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인 방송을 하면서 그것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지원자의 답변에 이어서 1인 방송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②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자세에 관한 지원자의 답변에 대해 강의를 해도 되겠다는 칭찬을 하면서 지원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악성 댓글의 대처 방법을 물어보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지원자의 답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 ⑤ 자신이 했던 1인 방송 중에서 기억에 남는 방송을 묻는 질문에 지원자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하자 반응이 좋았던 방송을 떠올려 보라는 조언을 건네고 있다.

03 면접 평가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지원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심호흡을 한 후 차분한 태도로 답변을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원자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1인 방송의 매력을 동아리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1인 방송을 더 공부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질문 의도에 충실하게 답변하였다.
 ② 지원자는 자신이 만들었던 방송 중 기억에 남는 방송으로 교내 급식 방송의 경험만 언급하고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지원자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면 동아리 구성원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밝히면서 동아리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지원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의 열정을 강조하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4~07] 화법+작문

04 참가자의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학생 1이 학생 4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학생 4의 의견에 덧붙여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회자는 ‘학교 주변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는 걸로 정하면 어떨까?’처럼 의문형의 진술로 학교 주변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고 싶은 자신의 견해를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학생 2는 학교 주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자는 사회자의 제안에 일단 공감을 표시한 후 자신의 견해를 이어서 표명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학생 1이 학교 주변 사적지를 나열한 내용에서 ‘독립운동가의 집터’라는 공통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독립운동가의 행적과 관련된 사적지 소개라는 자신의 의견을 세우는데 참고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손병희 선생의 행적과 관련 있는 학교 주변의 사적지 2곳을 중심으로 글을 쓰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05 문맥을 통한 말하기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B] 뒤에 이어지는 사회자의 말을 보면 [B]에는 학생들이 소개하는 사적지들을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손병희 선생 집터’의 위치를 학생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 위주로 사적지의 위치를 안내해 준다는 내용이 [B]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조선어학회 터’에 대한 소개는 (나)를 고려해 볼 때 글의 화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 ② ‘이상재 선생 집터’에 대한 소개는 (나)를 고려해 볼 때 글의 화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 ④ (나)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손병희 선생과 관련된 사적지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나)에서 유적지와 사적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06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상춘원’에서 손병희 선생이 숨을 거둔 내용은 (나)에 들어가지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1 운동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나)에 드러나지 않았다.
- ② (나)의 1문단에 손병희 선생이 3·1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 ③ (나)의 3문단에 손병희 선생의 집에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23인이 모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 ④ (나)의 1문단에 손병희 선생이 민족 대표 33인의 일원으로 독립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07 선행 작문과의 연관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3·1 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는 새로운 사적지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사적지를 탐방하며 손병희 선생의 삶에 대한 숭고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탐방의 의의를 말하고 있다.
- ② <보기>에서 소개글을 읽으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딱딱한 느낌이 들었고 안내판의 글도 읽기에 부담스러웠다고 언급하면서 사적지의 실제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글쓴이는 맛집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보기>의 글쓴이는 시립 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 설명한 작은 사거리가 실제로는 큰 삼거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08~10] 작문

08 글쓰기 전략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꽃거름 작물의 구조를 개별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꽃거름 작물을 심었을 때의 다양한 효과를 설명하고자 2문단에서 '일석이조'라는 사자성어를 활용하였다.
 ② 3문단에서 헤어리 베치의 화학 비료 대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꽃거름과 퇴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헤어리 베치가 꽃거름으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09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점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꽃거름 작물 재배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꽃거름 작물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대표적인 꽃거름 작물의 예를 들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꽃거름 작물인 헤어리 베치를 꽃거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꽃거름 작물의 사용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0 자료 활용의 적절성 여부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ㄴ)을 보면 화학 비료와 비교해 볼 때 주 작물의 생육과 수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ㄷ)은 꽃거름 작물의 활용을 위해 정부의 종자비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ㄴ)과 (ㄷ)은 꽃거름 작물 활용이 특정 농산물 생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은 4문단에서 경관 겸용 꽃거름 작물이 농촌 축제에 활용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ㄴ)은 4문단에서 꽃거름 작물이 다른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ㄷ)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꽃거름 작물 재배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4문단에서 꽃거름 작물의 비싼 종자

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ㄱ)은 꽃거름 작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효용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ㄴ)은 꽃거름 작물이 토양의 개량에 효용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11~15] 문법

[11~12] 음운 변동의 유형과 로마자 표기법

해제 이 글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중심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음운 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각각의 음운 변동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특히 된소리되기와 체언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지 않음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제 음운 변동의 세부 종류와 로마자 표기법에서의 반영 여부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말기다[말끼다]’에서는 평파열음화(교체)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똥[똥른]’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② ‘첫해[처태]’에서는 평파열음화(교체)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③ ‘백여우[뱅녀우]’에서는 ‘ㄴ’ 첨가(첨가)와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난다.
 ④ ‘흙화덕[흐과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든다.

12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체언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집현전[지편전]’은 ‘Jipyeonjeon’이 아니라 ‘Jiphyeonjeon’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말의 ‘ㄷ’은 ‘t’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한밭[한받]’은 ‘Hanbat’으로 적는다.
 ②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죽변[죽뽀]’은 ‘Jukppyeon’이 아니라 ‘Jukbyeon’으로 적어야 한다.
 ③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백마[뱅마]’는 ‘Baekma’가 아니라 ‘Baengma’로 적어야 한다.
 ⑤ ‘ㄴ’ 첨가와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여울[hangnyeoul]’은 ‘Hakyeoul’이 아니라 ‘Hangnyeoul’로 적어야 한다.

13 파생 접사와 전성 어미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부사어 ‘억지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안긴문장의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을 통해 ‘웃음’이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형어 ‘아이 같은’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웃음’이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② 관형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웃음’이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③ 관형어 ‘아이의’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서술격 조사와 결합해서만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을 통해 ‘웃음’이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⑤ 관형어 ‘사람들의’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웃음’이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14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메우다’는 어근이 ‘메-’이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우-’만이 확인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태우다’는 어근이 ‘타-’이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우-’가 확인된다.
 ② ‘재우다’는 어근이 ‘자-’이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우-’가 확인된다.
 ④ ‘채우다’는 어근이 ‘차-’이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우-’가 확인된다.
 ⑤ ‘세우다’는 어근이 ‘서-’이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우-’가 확인된다.

15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다)의 첫 번째 예문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이, 두 번째 예문에서는 ‘을’이 확인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를’로만 쓰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평칭의 호격 조사 ‘아’와 존칭

의 호격 조사 ‘하’가 구분되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의 ‘배(바+ 1)’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라)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 ‘의’가 확인되는데, 전자는 앞에 양성 모음이 나올 때 쓰였고 후자는 앞에 음성 모음이 나올 때 쓰였다.
- ⑤ (마)의 ‘저그로(적+으로)’가 ‘적(때)부터’로 풀이됨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20] 인문

‘심리적 면역 체계’

해제 이 글은 행복과 불행의 정서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으로 인한 행복이나 불행의 정도나 지속 시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한 가지 관점에 의한 사건의 해석, 동기의 왜곡, 다른 사건의 배제라는 정신적 메커니즘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편견은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불행한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행복과 불행의 정서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그 이유

구성

- 1문단: 정서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의 부정확성
- 2문단: 정서에 대한 편견의 발생과 관련한 실험 결과
- 3문단: 정서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
- 4문단: 부정적인 정서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정서에 대한 편견
- 5문단: 부정적인 정서에서 정서에 대한 편견이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

16 서술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에서는 정서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다는 통념과 어긋나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 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7 구체적 사례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행복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 정서의 편차가 지희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희는 차를 바꿀 생각이 없으므로 행복감의 지속 시간의 차이가 지희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희는 큰 차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에 집중하여 경차를 구입하고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행복과 불행의 정서가 지속되는 시간은 사람들의 예측치보다 짧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영수는 차의 유지비와 크기 중 한 가지 요소에만 치우쳐 판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영수가 합리화를 위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부풀려 인식하였다면 이것은 ‘일하면서 받을지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부

풀려 인식'하는 것과 같은 동기의 왜곡으로 볼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당선된 후보자에 대한 승자의 집단의 의견은 일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5문단에서 패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은 선거 전에 비해 선거 후 당선된 후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승자의 집단이나 패자의 집단 모두 실제 경험한 정서의 정도는 예상치와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정서의 정도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인 정서의 예측에서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4문단에서 승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 경험한 행복의 정도는 예상치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9 적절한 반응 찾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행복의 지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편견이 아니라면 실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사람들은 예상한 만큼보다 오랜 시간 행복을 느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 심리적 면역 체계와 신체적 면역 체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심리적 면역 체계는 불행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면역 체계의 작동은 행복의 지속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 상대편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불행의 지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편견이 아니라면 실제 불행을 느끼는 시간은 길어지므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재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20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 찾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문맥상 ㉔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

이다. 하지만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의 의미이므로 거리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발견'이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② '편중'이란 '한쪽으로 치우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③ '촉발'이란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④ '퇴치'란 '물리쳐서 아주 없애 버림.'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 문항 및 고난도 문항 완벽 대비

[21~26] 사회

‘코즈의 정리와 법경제학’

해제 이 글은 코즈의 정리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은 A의 행동이 B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쳤는데, A가 B에게 어떤 대가를 받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 코즈는 이에 대해 누구에게 재산권이 있는지가 명확히 확정된다면, 각 경제 주체가 교섭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인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만큼 이루어진다고 정리한다. 재산권을 할당하는 문제는 법경제학의 여러 견해와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 사회 정의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제 코즈의 정리와 법경제학

구성

- 1문단: 경제에서 발생하는 외부성
- 2문단: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
- 3문단: 외부성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코즈의 정리
- 4문단: 코즈의 정리가 갖는 두 가지 함의 ①
- 5문단: 코즈의 정리가 갖는 두 가지 함의 ②
- 6문단: 코즈의 정리에 대한 비판과 재반론
- 7문단: 코즈의 정리와 관련된 법경제학의 문제
- 8문단: 재산권 확정의 올바른 방향

21 서술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에서 대상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과 4문단에서 각각 외부성과 상호성의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양봉업자나 어민의 예를 활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코즈의 정리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3문단에서 외부성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관계라는 화제를 의문형 진술로 제시하고 있다.

22 내용의 구체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서 언급한 상호성은 A가 B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함은 곧 A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문구로 구체화된

다. 그러므로 상호성은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A에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A의 이익을 감소시켜 손해를 입힌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가 B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B의 이익은 감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A가 B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A의 이익은 증대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B의 이익은 증대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A의 이익은 감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코즈는 불분명한 권리 관계가 분쟁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재산권 부여를 통해 외부성이 내부화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공장이나 주민 누구에게나 재산권을 부여해도 외부성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된다. 그러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공해권을 인정한 경우 공장과의 거래 비용이 40만 원이라면 매연 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 110만 원을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은 매연 방지 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10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려 할 것이다.
- ③ 외부성이란 A의 행동이 B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쳤는데, A가 B에게 어떤 대가를 받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하며 이를 내부화한다는 것은 A가 B에게 어떤 대가를 받거나 배상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④ 환경권을 인정하면 공장이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30만 원의 이익이 된다. 하지만 주민과의 거래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으므로 2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 ⑤ 법원의 판결 이후 거래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과 주민 측이 협상을 한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던 매연 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적절하다.

24 내용의 추론적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이 글에서 언급한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는 가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찰이 있는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 방식은 거래 비용이 없는 가상의 세계를 이해해야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5 내용의 추론적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재산권 부여를 통해 외부성이 내부화된다면 외부성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하였으므로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코즈의 정리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외부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전제와 법 원리에 따른 재산권 획정이라는 접근 방식이 서로 배치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③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라면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효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장의 이익이 어민의 피해보다 크므로 적절하다.

26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은 고통이나 기쁨, 피해처럼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한다는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에서와 같은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②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에서와 같은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③ ‘나는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한다.’에서와 같은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④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에서와 같은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27~30] 과학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해제 이 글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는 모든 관성계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갈릴레이는 시간이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끌어 낸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갈릴레이의 변환식은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로런츠 변환식으로 나오는 결과와 동일하다.

주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구성

- 1문단: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
- 2문단: 지동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관성계
- 3문단: 날아가는 새의 속도 관측 사례
- 4문단: 사례를 활용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한 설명
- 5문단: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 6문단: 기차의 사례를 통한 부연
- 7문단: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관계

27 내용의 사실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6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갈릴레이의 이론에 따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갈릴레이는 관성계를 통해 지동설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5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가정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관찰자가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 중에 있다면 관찰자는 관성계에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2문단에서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던져 올린 공과 영희가 모두 수평 방향으로만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8 내용의 사실적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움직이는 배 안에서 위로 던진 공이 뒤로 가지 않는 이유는 관찰자처럼 공도 배 안에 타서 같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동설에 따라 지구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고 해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체의 정지 상태는 곧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9 내용의 구체적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희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영수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에 비해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현상, 즉 빛이 거울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영희의 시간이 영수의 시간보다 빨리 간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우주선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영수와 영희의 상대 속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두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이동 거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날고 있는 우주선에 탄 영수와 우주선에서 영수가 관찰한 빛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관성계 속에 있는 관찰자가 던져 올린 공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영수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정지했을 때 관찰하는 빛의 이동 거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③ 영희는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의 빛을 보고 있다. 그런데 우주선이 날고 있다면 그 안의 빛도 이동하기 때문에 영희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우주선이 정지했을 때에 비해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④ 갈릴레이는 모든 관성계에서의 시간은 동일하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30 개념의 비교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글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력을 무한대로 가정하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된다는 것

을 수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고 가정하면 ㉠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실전모의고사
실전 경험으로 실력을 완성

[31~34] 현대시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해제 이 작품에는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에 대해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출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4연에서 ‘시대’를 언급한 것을 통해 이 괴로움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 6연에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 반석과 언덕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구성

- 1~2연: 바람으로 인해 괴로움을 인식함.
- 3~4연: 괴로움의 원인을 탐색함.
- 5~6연: 반석과 언덕 위에서 있는 화자

(나)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해제 이 작품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통해 부조리한 권력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권력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신이 모래나 먼지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조한다. 이 작품에는 자신의 비겁함을 인지하면서도 불합리한 역사에 용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자의 성찰이 담겨 있다.

주제 부정한 권력과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삶

구성

- 1~2연: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지속된 ‘나’의 웅졸한 삶
- 4연: 왜소한 ‘나’의 모습 인식
- 5연: 절정에서 비껴서 있는 ‘나’의 소시민적 삶
- 6연: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 ‘나’의 웅졸한 삶
- 7연: 웅졸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나)에서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자꾸’, (나)에서는 ‘조금쯤’, ‘얼마큼’ 등의 부사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이러한 부사어의 반복이 화자의 변화된 인식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 ② (나)에서는 ‘돼지 같은 주인 년’과 같은 비속어가 사용되면서 현실감이 부여되고 있지만, (가)에는 비속어가 사용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떨어지는 은행나무잎’에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복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정서가 자연물과 합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 주는 부분은 (가)와 (나)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3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분개한다’는 부정한 권력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는 (가)의 화자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는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 따라 (가)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시대를 슬퍼한 일’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 ③ <보기>는 (나)의 화자가 자유를 억압받던 시대 현실 속에서도 소시민적 삶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한다. (나)의 ‘웅졸한 나의 전통’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④ <보기>에 따르면 (나)는 시대 현실에 울분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시민적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E]에서 화자는 ‘모래’, ‘바람’, ‘풀’과 같은 자연물을 호명하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다른 대상과 자신을 대조하거나 자신의 보잘것없는 행동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화자는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거나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 자유를 요구하거나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는 않으면서 '50원짜리 갈비'나 '야경꾼'과 같이 사소한 대상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과거 '포로수용소'에서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을 때 정보원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일을 회상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B]에서 언급한 과거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비겁한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4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 ㉡은 옹졸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을 부각하는 자연물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에게 괴로움을 환기하면서 일제 강점기라는 외적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 화자가 부정한 권력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외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과 ㉡ 모두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분노를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 화자의 숙명을 각인시키는 것도 아니다.
- ⑤ ㉠과 ㉡ 모두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35~37] 현대 소설

최인훈, 「회색인」

해제 이 작품은 4·19 혁명 직전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당대 젊은 지식인의 고뇌와 우울 등을 그리고 있다. 삶의 뿌리가 뽑힌 채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 독고준을 중심으로 물로 내세워 분단 현실과 민족주의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고준의 내면 서술과 독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념 소설로서의 특징이 뚜렷한 작품이다.

주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지식인의 소외 의식과 그 내면세계

전체 줄거리

1958년, 비 내리는 어느 가을 저녁에 독고준의 하숙집으로 친구인 김학이 찾아온다. 정치학과에 다니는 김학은 국문학도이면서 소설을 쓰는 독고준에게 동인회 '간한 세대'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만, 현실 변혁에 회의적인 독고준은 정치학도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려 한다. 김학과 한바탕 설전을 벌인 독고준은 그가 돌아가자 자신의 유년 시절과 가족을 떠올리고는 현실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깨닫는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독고준은 월남할 때 가져온 가방에서 한때 매형이었던 현호성의 당원증을 발견한다. 독고준은 이를 빌미로 공산당원이었던 과거를 숨긴 채 남한 자유당의 당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현호성과 거래를 하여 그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독고준은 그곳에서 만난 현호성의 처제인 이유정에 점점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고준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상념의 나날을 보내는 자신의 비겁함과 소심함에 끊임없이 갈등한다. 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저녁,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독고준은 현실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35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작품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는 독고준의 내면 의식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나의 모든 시간이 일요일의 시간이 된다.', '소설은 나에게 또 하나의 자유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신이 된다.' 등과 같이 독고준이라는 인물의 독백을 그대로 서술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인물의 내면 의식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지문에서는 인물들 간의 대화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술자가 주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독고준이 회상하거나 상상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꿈속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지는 않다.
- ④ 서술자는 독고준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다른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⑤ 전지적 시점이므로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독고준은 ‘당중을 발견’하고는 ‘공상의 계획’을 떠올린다. 돈이 궁한 상황에서 독고준은 ‘당중’을 빌미로 삼아 현호성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고준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 하는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고준은 한때 매형이었던 현호성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현호성이 불일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남 자체를 마다해 버린 것에 대해 슬픔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호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해서 허전함을 느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③ 독고준은 돈이 궁해 ‘당중’을 빌미로 현호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 ‘오늘 현호성에게 그것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독고준이 실제로는 현호성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느낀 감정으로 볼 수 없다.
- ④ 독고준은 현호성을 만나지 못하자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하며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살아남아야 하면서도 그럴 방도가 없는 데서 비롯된 감정일 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
- ⑤ 독고준은 현호성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밥걱정’과 ‘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나며 기쁨과 평화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독고준이 느끼는 ‘투묘의 감정’일 뿐, 현호성과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된 것에 따른 감정으로 볼 수 없다.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고준은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지만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보다는 더 오래 살아남아야겠다는 생명의 본능을 중시하게 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어떤 공동체적 명분도 개인적 본능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② 독고준은 가족주의의 해체를 통해 자유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호성의 집에 들어가면서 ‘부단히 반응하고 대결해야 할 ‘가족’을 얻은 것에 대해 ‘투묘의 감정’ 또는 ‘안도감’을 느낀다. 이는 독고준의 모순적 감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④ 독고준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십자가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막상 현호성의 집에서는 ‘일요일의 시간’, 즉 ‘한없이 게으를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는 신념과 의지를 잃은 채 현실에 안주하는 무력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독고준은 스스로 신이 되어 ‘또 하나의 자유’를 얻기 위해 ‘소설’을 쓰려고 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현호성의 도움을 받아 생계 문제를 해결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악덕 자본가의 빵에 얹힌 신’, ‘지저분한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고준은 ‘요새는 그렇게밖에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독고준이 자본가의 힘에 기대어 가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독고준은 현호성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가 소속한 이 좌표의 체계’에 대해 조금도 사랑을 가지지 않기로 작정하였지만, 현호성의 집에서 두 달을 생활하면서 ‘어깨에 힘준 철학’으로 지칭되는 스스로의 신념을 버리고 게으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때 ‘어깨에 힘준 철학’은 기성 윤리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졌던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조종되지 않는 삶은 자기 신념과 비판 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성 윤리를 거부하려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볼

작자 미상, 『정음선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가정 소설로, 전반부는 계모와 전처소생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는 계모형 가정 소설이고, 후반부는 남편을 둘러싼 처첩 간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형 가정 소설에 해당한다.

주제 봉건 가족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때 정 승상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을선을 얻고 정 승상의 친구인 유 승상은 딸 추연을 얻는다. 유 승상의 부인은 추연을 낳고 삼 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후실로 들어온 노 씨는 추연을 박대한다. 이후 을선과 추연은 사랑에 빠져 혼약한다. 그러나 노 씨의 음모로 을선은 추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떠나고, 추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혈서로 남긴 후 자결한다. 이후 천지신명의 분노로 노 씨가 죽고, 추연의 원혼이 출몰하면서 유 승상 및 부근 마을의 백성이 모두 죽게 된다. 한편 조왕의 딸과 결혼하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을선은 추연의 유모에게서 그간의 사연을 듣고 선인에게서 구한 약으로 추연을 살린다. 죽었다 살아난 추연은 을선과 결혼하여 총렬부인에 봉해지고 조왕의 딸인 정렬부인과 갈등하게 된다. 마침 서용의 반란으로 을선이 대원수로 출전하게 되자 총렬부인은 정렬부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된다. 시비 금섬은 총렬부인을 옥에서 탈출시킨 후 총렬부인의 옷을 입고 대신 죽고 금섬의 오라비는 을선에게 총렬부인의 서간을 전한다. 총렬부인은 지함에 숨어 아이를 낳지만 오랫동안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한편 서간을 읽고 집으로 돌아온 을선은 총렬부인을 구하고 정렬부인을 처벌한다. 이후 을선과 총렬부인은 영화를 누리다가 한날 한시에 죽는다.

38 작품의 서사적 특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금섬은 부모에게 행장이 없음을 한탄하며 행장만 있으면 유 부인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부모는 행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유 부인을 구하라고 말한다. 또한 ‘나는 여차여차할 것이니, 너는 여차여차하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섬은 유 부인을 구할 방안을 시비 월매에게 알려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을 위기에 처한 유 부인을 살릴 방안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원수의 꿈에 총렬부인이 나타나는 장면을 환상적인 요소가 개입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인물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렵다.

- ②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할러라.’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논평을 하고는 있으나, 인물의 성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총렬부인이 있는 본택과 대원수가 있는 서평관이라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인물이 자신의 심경을 이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다.

39 글의 세부적인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원수가 보기를 다 못하여 대경하여 급히 호철을 불러 물으니, 호철의 대답이 분명치 못하나 대강 알지라.’라는 내용을 통해 원수가 금섬의 오라비인 호철에게 유 부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듣는다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행장이 무엇이 어려우리오? 네 말대로 행장을 차려 줄 것이니 아무쪼록 총렬부인을 무사케 하라.’라는 금섬의 부모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오라비 일일에 오백 리씩 다닌다 하오니, 행장이 있사오면 부인의 서간을 가지고 승상 노야 진중에 가오면 능히 살릴 도리가 있나이다.’라는 금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노주간은 상전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몸이 마치도록 섬기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니, 내 이리하는 것은 나의 직분을 다함이니, 너는 말리지 말라.’라는 금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박명한 죄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으리오?’라는 유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소재의 기능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행장’은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을 의미한다. 이는 금섬의 오라비인 호철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 아닌, 유 부인의 서찰을 대원수에게 전달하여, 유 부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은 총렬부인이 간혀 있는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유 부인을 옥에서 구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㉔은 충렬부인을 숨긴 장소에 해당한다. 여기서 지함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상자라, 월매가 충렬부인을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④ ㉔은 원수가 꿈 꾸므로 '놀라고 몸이 떨리어 일어나니'를 통해 원수가 유 부인의 처지에 대해 불길한 느낌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㉔은 '삼 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니라.'라는 내용을 통해 원수가 유 부인에게 달려가는 시간을 줄여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유 부인은 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첩의 죄 심중하여 세상을 버린 지 삼 년 만에 장군의 은덕을 입사와 살아났사오니'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자신을 살려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다. 이는 과거 승상이 죽은 유 부인을 살려 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전쟁 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의 면모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차시 원수가 한 번 북 쳐 서용을 항복받고 백성을 진무하며 대연을 배설하여 삼군으로 즐길새, 장졸이 희열하여 승전고를 울리며 즐기더라.'는 전쟁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른 군담 소설에 비해 이 작품에서 전쟁 장면이 간략히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원수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정렬부인이 음해를 해서 충렬부인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졌으므로, 이 작품에서 전쟁은 처첩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④ '본부에 급한 일'은 충렬부인이 음해를 입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수가 '본부에 급한 일'로 인해 '중군 대소사'를 부원수에게 맡기고 떠나는 장면은 주인공의 삶에서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 개인적 차원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원수가 이에 청총마를 채쳐 필마단기로 삼 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니라.'라는 내용에서 정렬부인의 음해로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유 부인, 즉 충렬부인을 고난에서 구해 주는 해결사로서의 원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2~45] 고전 시가+고전 산문

(가) 정철, 「관동별곡」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두루 유람한 후 그 풍경과 자신의 소감을 읊은 노래이다. 감탄사, 대구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 말의 묘미를 잘 살려 가사 작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유교적 충의 사상

구성

- 1~11행: 진월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
- 12~25행: 개심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
- 26~31행: 화룡소에서 느낀 선정의 예미
- 32~39행: 강문교 주변의 풍경과 강릉의 미풍양속
- 40~46행: 죽서루에서 느낀 회포와 객수

(나) 이첨, 「원수」

해제 이 작품은 물의 속성을 밝혀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물의 근원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유추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속성을 인간사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인재 등용 비판

구성

- 1문단: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의 근원
- 2문단: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 3문단: 물의 근원을 알아내어 우물을 만든 경험
- 4문단: 사람의 본성을 헤아려 등용하는 일의 중요성
- 5문단: 물의 근원을 아는 것의 중요성

4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는 '쇼향노 대향노' 등의 구체적 지명을 밝히면서 관동 지방 일대를 유람하며 느낀 흥취나 관리로서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하동'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 흘샤'와 같은 구절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예찬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와 같이 영탄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쓰이고 있지 않다.
- ③ (가)의 경우 '쇼향노 대향노' 등의 자연물을 나열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화자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나)의 경우 자연물을 나열한 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4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크고 웅장한 정자의 모습이 아닌 정자 위에서 바라다보이는 강문과 주변의 풍경을 예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의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다양한 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 넓은 천하를 작다고 말한 사람의 호연지기를 부러워하고 있다.
 ④ 화룡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치 용의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다.

4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C]에는 ‘나’가 우물을 만들었던 경험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E]에서는 맹자의 말을 바탕으로 물의 근원을 알아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 질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 [C]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물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C]에서 언급된 사례는 [A]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이 물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반례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D]에 ‘나’의 인식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언급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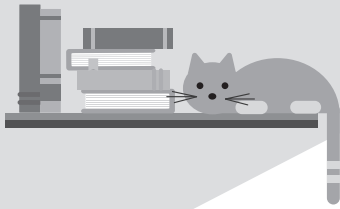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왕명이 유희하고 풍경이 못 슬피니 / 유희도 하도 할사’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과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

등을 나타낸 구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을 완상하는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는 (가)가 관동 지방을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라고 설명한다. 이는 ‘쇼향노 대향노’에서부터 ‘진주관 독서루’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② <보기>는 (가)에 관리로서 화자가 느끼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오십천 느린 물’을 보고 그 물줄기를 ‘한강의 목맥’, 즉 임금이 계신 곳에 닿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심을 드러내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④ <보기>는 (나)가 자연물의 근원과 속성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물의 속성이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물의 근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⑤ <보기>는 (나)가 자연물의 속성에 근거하여 인간 세상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물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인재를 등용할 때에도 ‘마음의 곡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정답과 해설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60~186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②
11 ④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③	19 ⑤	20 ②
21 ⑤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③	27 ⑤	28 ④	29 ③	30 ③
31 ⑤	32 ④	33 ④	34 ③	35 ③
36 ③	37 ③	38 ②	39 ⑤	40 ②
41 ①	42 ③	43 ④	44 ④	45 ⑤

[01~03] 화법

01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뉴스 등과 같이 청중의 주의를 끌 만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입부에 언급된다. 특히 뉴스는 청중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담기에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강연의 첫 부분을 포함해 지문 어디에서도 뉴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조선 시대에 실제 사용된 광두정을 들고나와 청중에게 보여 주어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③ 강연의 내용 중에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광두정의 크기가 왜 제각각인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강연은 여러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의 말하기이므로 경어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강연도 ‘~이죠?’,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활용하여 강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강연의 중심 화제가 광두정임을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02 메모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받침쇠가 광두정과 가구를 더 밀착하게 하는 것은 광두정의 실용적 용도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광두정은 일반적인 못에 비해 못의 머리가 둥글넓적한 못을 일컫는다.
 ② 광두정은 못이 박힌 자국이나 가구의 흠집 등을 가려 준다.

- ③ 광두정의 머리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구의 빈 공간에 미적인 용도로 부착하는 것은 광두정의 장식적인 용도와 관련이 있다.
 ④ 받침쇠란 광두정을 박을 때 그 밑에 대어 받치는 평평한 철을 의미한다.

03 강연 듣기 전략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기>에서 강연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연자가 차분한 어조로 말해 다소 지루했다는 것은 반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 것이다.
 ② 질문의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는 말은 청중과의 의사소통 측면을 평가한 것이다.
 ③ 민속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고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④ 광두정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 다양한 모양의 받침쇠 그림 등에 대한 아쉬움은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했는지를 평가하며 듣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

[04~07] 화법+작문

04 앵커의 말하기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앵커가 다른 제품을 언급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헤파 필터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언급했던 정보를 활용해 대답을 하고 있다.
 ② 시청자가 일상에서 겪는 미세 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의 화제로 헤파 필터를 제시하고 있다.
 ③ 효율이 높은 필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의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의아함을 드러내며 반문하고 있다.
 ④ 프리필터, 활성탄 필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05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ㄴ)은 유럽 EN1822 인증 기준에 따른 헤파 필터의 등급별 미세 먼지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 시각 자료이다. (가)에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등급의 헤파 필터를 선호한다고 하였을 뿐, 해당 인증 기준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은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 초미세 먼지 입자의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는 자료이다.
 ② (ㄴ)은 헤파 필터의 내부 구조로 헤파 필터가 먼지를 걸러 내는 방법을 시청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이다.
 ③ (ㄷ)은 공기 청정기에서 일반적으로 헤파 필터와 같이 사용되는 프리필터, 활성탄 필터를 보여 주는 시각적 자료로 각 필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⑤ (ㄹ)은 헤파 필터와 제품 본체의 결합을 보여 주는 시각적 자료로 (ㄹ)에 표시된 부분을 통해 헤파 필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미세한 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06 글쓰기 표현 방식과 효과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에서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부분

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제목에 의문형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해야 한다’의 표현을 통해 헤파 필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공기 청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 예를 들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헤파 필터, 프리필터, 활성탄 필터를 이와 입술의 관계에 빗대어 표현하여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전략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는 헤파 필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나)는 그중에서 공기 청정기 속 헤파 필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살펴봐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얻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헤파 필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강연의 화제인 헤파 필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에 주목하여 서술하지 않았고 (나) 역시 (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헤파 필터의 구매자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 헤파 필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다.

[08~10] 작문

08 매체 언어 간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에는 (가)와 달리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선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둘 모두 예상 수용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축제 준비 위원 모집 공고문이나 모집 영상을 본 사람이 축제 준비 위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에 제작의 목적이 있다.
 ③ 실제 축제 준비 위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가)는 모집 공고문으로 문자 언어만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기>는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09 글쓰기 반영 여부 점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문단에 준비 위원으로서 나의 장점으로 소통 능력과 축제에 대한 이해 능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③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4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내용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으로써'는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 기준이 되는 시간, 일의 이유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서'가 적절하다.
 ③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을'로 고쳐야 한다.
 ④ '들어나다'는 비표준어로서 '드러나다'가 적절하다.
 ⑤ '힘'은 체언이고 '이나마'는 보조사이므로 '힘이나마'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삿일[상닐]'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ㄴ' 첨가(㉢)가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취가루[취까루]'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박도[박또]'에서는 평파열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웃맵시[온맵씨]'에서는 평파열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권력자[결력짜]'에서는 유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 서술어 '흥미를 느끼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문화에'는 '문화에다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의 서술어 '선출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후보로'는 '후보에'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식당에'는 '식당에다가'로 교체가 가능하다. ㉡의 '장관으로'는 '장관에'로 교체가 가능하다.
 ② ㉠의 '쓰레기통에'는 '쓰레기통에다가'로 교체가 가능하다. ㉡의 서술어 '입사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대리로'는 '대리에'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③ ㉠의 서술어 '반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마음에'는 '마음에다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의 '국회 의원으로'는 '국회 의원에'로 교체가 가능하다.
 ⑤ ㉠의 '우유에'는 '우유에다가'로 교체가 가능하다. ㉡의 '교장으로'는 '교장에'로 교체가 가능하다.

13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씩다[2]'의 의미를 고려할 때 '장비를 썩히고 있다'로 써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삭다[1]'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밥을 삭히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② '삭다[2]'의 의미를 고려할 때 '분을 삭이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④ '씩다[3]'의 의미를 고려할 때 '속을 썩이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⑤ '씩다[1]'의 의미를 고려할 때 '낙과를 썩히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14~15] 높임법의 종류와 실현 요소

해제 이 글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라는 높임법의 종류와 각각의 실현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범주화되며, 각각의 높임법들은 문법적인 요소와 어휘적인 요소에 의해 실현됨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밝히고 있다. 한편,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일부 어휘들은 사용 맥락에 따라 높임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주제 우리말 높임의 범주와 높임의 실현 요소

14 높임 표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에 쓰인 ‘마시다’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아니다. ㉠에 서는 문법적 요소인 ‘께서’와 ‘-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쓰인 ‘께서’와 ‘-시-’는 둘 다 문법 형태소로,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에 쓰인 ‘진지’는 사용 맥락에 따라 높임의 대상이 달라지는 어휘로, 여기에서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④ ㉣에 쓰인 종결 어미 ‘-어라’는 대화 상대인 철호를 낮추기 위해 쓰인, 즉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문법 형태소이다.
- ⑤ ㉤에 쓰인 ‘저’, ‘말씀’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대화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는 겸양 표현이다.

15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되시다(모시다)’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객체인 ‘부텃 숭례’를 높이고 있다.
- ㉢ ‘싫다(사되다)’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객체인 ‘님금’을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자시다(주무시다)’는 문법적 요소인 ‘-시-’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현대 국어에서 ‘주무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것과 차이가 난다.
- ㉣ ‘좌시다(자시다)’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 ㉤ ‘겨시다(계시다)’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주체인 ‘님尊’을 높이고 있다.

[16~20] 사회

‘소비와 문화의 불평등’

해제 현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에 기대어 전개한 글이다. 각 계층의 소비 형태와 관련된 문화적 취향과 안목의 차이가 사실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와 중첩되며, 경제적 자본이 문화적 차이를 만들고 교육이 오히려 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논리를 부르디외가 사용한 ‘구별 짓기’, ‘아비투스’, ‘장(場)’, ‘상징적 폭력’, ‘상징 투쟁’과 같은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개하고 있다.

주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소비와 문화의 불평등 원인 고찰

구성

- 1문단: 소비의 차별화와 부르디외의 ‘구별 짓기’
- 2문단: ‘아비투스’와 ‘장(場)’의 의미
- 3문단: 필요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필요 취향과 사치 취향
- 4문단: 취향의 자연화로 인한 계층적 문화 차이의 정당화
- 5문단: 문화 자본의 은폐 효과
- 6문단: 교육을 통한 계층의 재생산
- 7문단: 상징적 폭력과 상징 투쟁
- 8문단: 부르디외가 주장한 사회 비판의 의의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중심 화제인 현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르디외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르디외의 주장이 지닌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부르디외의 이론을 계승하는 후속 연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그 이후 새롭게 도출된 이론도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해당 이론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17 세부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상징 투쟁은 지배 계층이 내세우는 상징과 가치에 대한 피지배 계층의 불만으로 인해 하위문화나 대항문화를 통한 저항이 분출되는 것이므로 중상류층의 불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는 ~ 체화된 결과이다.’를 통해 취향은 결국 경제 계층적 조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4문단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는 ~ 체화된 결과이다.’를 통해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들 때문에 취향의 자연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의 ‘경제적 격차는 ~ 혐의를 피할 수 있게 된다.’를 통해 문화 자본이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능력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7문단의 ‘이러한 정당화는 ~ 받아들여도록 한다.’를 통해 대중은 지배 계층의 상징, 가치관, 사고방식을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내용의 비판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다)는 아비투스가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사되는 장의 사례가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계층적 위치에 근거한 아비투스가 행사되는 동일한 ‘장’의 각 개인이 예술적 감상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이므로, 오히려 인간의 행동이 일정한 기억과 습관,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부르디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 환경을 제공한다.’를 통해 〈보기〉의 (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중상류층의 그것을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7문단의 ‘이러한 정당화는 ~ 받아들여도록 한다.’를 통해 (나)가 한 사회 지배 계층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정당화하는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6문단의 ‘학교는 사회의 ~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와 7문단의 ‘지배 계층은 ~ 받아들여도록 한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 살아가게 된다고 말한다.’를 통해 (가)와 (나)의 결과로 각각 계층적 차이의 재생산과 지배 계층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의 보편화를 예측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부르디외의 주장을 강화하는 뒷받침 자료로, (다)는 인간의 행동이 교육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부르디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19 관련 자료에 대한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다)의 C국의 조사 결과 중 2010년대까지 특정 부문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이 문화 소비의 다양화 현상인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을 계층 간의 분화로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A는 현대 사회의 생활 양식이 매체와 거대 문화 자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 ② (나)의 B는 개인의 소득 증대, 여가 시간의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문화 소비 다양화의 원인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 ③ (다)의 C국의 자료로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의 계층적 차이가 좁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는 부르디외 이론에 대한 반론 자료로 적절하다.
- ④ (가)에서 A는 문화 소비 동질화의 원인을 매체와 거대 문화 자본의 영향에서 찾고 있으며 (다)에서는 C국의 문화 소비 유형의 다양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20 지문을 토대로 한 자료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부르디외는 사회적 투쟁의 동기를 지배 계층이 내세우는 상징과 가치에 대한 피지배 계층의 불안에서 찾고 있으며, 호네프는 그것을 자기 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무시에서 찾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8문단의 ‘부르디외에 의하면 ~ 지배에 기초한다.’와 (가)의 ‘사회 구성원들은 ~ 도덕적 행위 기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자기 존중감을 확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될 경우’를 통해 호네프는 부르디외와 달리 구성원 간의 갈등 원인을 도덕적 차원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서민층이 의식주 충족을 위해 ~ 선택의 자유를 전제한다.’와 (나)의 ‘생산적 노동을 멀리하고 ~ 탐닉하는 ‘유한계급’을 통해 부유층과 유한계급은 실용적 필요에서 벗어난 소비를 함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인정 관계를 형성하려는 사회적 투쟁’과 (나)의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통해 (가)의 사회 구성원들과 (나)의 유한계급은 모두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유한계급과 이 글의 부유층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타인과 차별화된 소비를 하지만, (가)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무시를 넘어 인정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뿐이다.

[21~25] 기술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해제 이 글은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유사도를 기준으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항목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나뉜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추천 대상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이 좋아했던 항목을 추천하는 반면, 항목 기반 협업 필터링은 추천 대상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비슷한 항목을 추천한다. 추천 시스템은 정확도와 재현율을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구성

- 1문단: 추천 시스템과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 2문단: 사용자 기반 CF와 항목 기반 CF의 원리
- 3문단: 사용자 기반 CF를 통한 추천 사례
- 4문단: 항목 기반 CF를 통한 추천 사례
- 5문단: 추천 시스템의 성과 측정 지표
- 6문단: 정확도와 재현율의 관계

21 글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추가로 입력된 경우, 항목 기반 CF는 새로 추가된 항목과 기존 항목들과의 유사도만 계산하며, 기존 항목들 간의 유사도는 새로 계산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추천 대상자가 아직 평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것이 추천 시스템의 목적이다.
- ②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선호 패턴이 미래에도 일관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이다.
- ③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들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④ 항목 기반 CF는 항목들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 대상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유사한 항목을 추천한다.

22 추가 정보를 통한 글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웃 집단은 사용자 기반 CF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항목 기반 CF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를 통해 이웃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천의 정확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크기보다 커질 경우 오히려 추천의 정확도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천 정확도를 최대로 하는 이웃 집단의 크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천 결과는 달라지므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 집단의 크기 변화에 따라 추천의 정확도가 달라지므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웃 집단의 크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④ 정해진 유사도 기준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웃 집단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유사도를 기준으로 이웃 집단을 결정할 경우 특정 유사도 이상의 사용자만 이웃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데 반해, 이웃 집단의 크기를 정하고 일정 순위 안에 들어온 사용자를 이웃 집단으로 구성할 경우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들이 이웃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3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항목 기반 CF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 1이 제품 1~3에 부여한 별점과, 제품 1~3과 제품 4, 5 사이의 유사도가 활용된다. 제품 1~3과 제품 4 사이의 유사도는 각각 0.76, 0.55, 0.91이며, 제품 1~3과 제품 5 사이의 유사도는 각각 0.76, 0.91, 0.55이다. 즉 유사도의 합은 $(0.76 + 0.55 + 0.91)$ 로 동일하다. 또한 제품 1과 제품 4, 5 사이의 유사도는 모두 0.76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사용자 1의 제품 4, 5에 대한 예상 별점의 우위는 $(0.55 \times 5 + 0.91 \times 3)$ 과 $(0.91 \times 5 + 0.55 \times 3)$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품 5의 예상 별점이 제품 4보다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5가 사용자 1에게 추천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용자 기반 CF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 3~5가 제품 4, 5에 부여한 별점과 사용자 1과 사용자 3~5 사이의 유사도가 활용된다. 이때 제품 4와 5의 경우, 사용자 3의 별점은 동일하며 사용자 4는 제품 5에 5점, 사용자 5는 제품 4에 4점을 부여했다. 사용자 1과의 유사도는 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동일하므로 제품 5가 사용자 1에게 추천될 것이다.
- ② 사용자 1과 유사도가 0.6 이상인 사용자는 사용자 3~5로 모두 3명이다.
- ③ 사용자 5와 유사도가 0.6 이상인 사용자는 사용자 1, 4이다.

- ⑤ 사용자 5는 제품 1~4에 별점을 부여하였으므로 4개 제품에 대한 별점 정보가 활용된다.

24 논리적 인과 관계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정확도 = $\frac{\text{참-긍정}}{(\text{참-긍정} + \text{거짓-긍정})}$ 이며, 재현율 = $\frac{\text{참-긍정}}{(\text{참-긍정} + \text{참-부정})}$ 이다.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 추천 항목의 수인 '참-긍정' + '거짓-긍정'을 늘리면 정확도의 분모를 늘리게 되므로 정확도는 떨어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참-긍정'과 '참-부정'의 합인 실제로 선택한 항목 수는 30개, '거짓-긍정'과 '거짓-부정'의 합인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항목 수는 20개로 서로 다르다.
 ② '참-긍정'과 '거짓-긍정'의 합인 추천 항목 수는 35개, '참-부정'과 '거짓-부정'의 합인 추천하지 않은 항목 수는 15개로 서로 다르다.
 ③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하는 항목의 수를 줄이면 '참-긍정'과 '거짓-긍정'의 합이 줄게 되는데, '참-긍정'과 '거짓-긍정'이 각각 줄어드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중 '거짓-긍정'의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거짓-긍정'과 '거짓-부정'의 합인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항목 수는 일정하므로 '거짓-긍정'의 수가 준 만큼 '거짓-부정'의 수는 늘어난다.
 ④ '참-긍정'의 수를 늘리면 정확도의 분자도 증가한다.

25 추가 정보와 글의 핵심 개념 비교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 프로파일과 아이템 프로파일의 유사성을 계산하는데, 이때 사용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사용자 프로파일은 과거 선호 패턴에 근거해 구해진다. 따라서 과거 선호 패턴과 상관없는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기보다는 과거 패턴에 잘 부합하는 콘텐츠를 추천할 것이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에 의존해 사용자 유사도 혹은 항목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에 근거해 콘텐츠를 추천하므로,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가 변하면 추천 대상 사용자의 선호가 일관되더라도 사용자의 과거 선호 패턴과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평가 정보가 없는 새로운 콘텐츠라도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해 아이템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프로파일과의 유사성을 계산해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

다.

- ③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 프로파일과 아이템 프로파일을 필요로 한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프로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대상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필요로 하며 다른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협업 필터링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추천을 생성하는 반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콘텐츠 자체가 아닌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추천을 생성한다.

[26~30] 예술

‘아방가르드와 예술 작품의 가치’

해제 순수 예술 개념의 출현과 사진술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20세기 ‘아방가르드’의 등장과 전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여러 가지 예술적 시도와 그 정신의 쇠퇴 및 의의를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1950년대 이후 자본에 포섭되는 과정과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주제 아방가르드 예술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

구성

- 1문단: 순수 예술 개념의 등장과 예술의 위기
- 2문단: 아방가르드 예술의 등장 배경
- 3문단: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시도 사례와 각각의 의의
- 4문단: 아방가르드가 당대 대중에게 외면당한 이유
- 5문단: 아방가르드의 역설과 아방가르드 정신의 쇠퇴
- 6문단: 아방가르드의 쇠퇴 원인과 상업적 대중문화의 대두
- 7문단: 아방가르드의 의의와 전망

26 세부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4문단의 ‘그러나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 인정받지 못했다.’와 5문단의 ‘결국 ~ 도발 정신은 찾기 어렵게 되었다.’를 통해 도발 정신과 상업주의의 결합으로 아방가르드가 대중의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의 ‘하지만 시간이 흘러 ~ 숨어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의 ‘아방가르드는 미의 ~ 충격을 주고자 했다.’와 3문단의 존 하트필드, 르네 마그리트, 뒤샹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 또한 분리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1문단의 ‘사진술의 등장은 ~ 경제적 재현 수단이었던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핵심 정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㉗의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날수록’은 2문단의 ‘초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방가르드는 일상의 탐구를 통해 초월적 세계가 아닌 일상 속의 예술을 구현하고자 했다.’를 통해 ㉗는 예술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가 일상적인 것을 초월해야 한다

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 4문단의 ‘그들은 오브제의 독창적 활용으로 ~ 도전하고자 했다.’를 통해 ㉘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㉗와 ㉘의 주체는 각각 순수 예술과 아방가르드이므로, ‘일상에서 예술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 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㉗는 2문단의 ‘초월’이라는 개념과 연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삶의 긍정’과는 무관하며, 예술의 소재를 일상에서 찾는 것과 예술로 일상에 충격을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㉗가 ‘종교적 세계’를 의미한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으며, ㉘는 4문단의 ‘그들에게 예술은 ~ 도전하고자 했다.’를 통해 예술의 관습을 찾아내려 했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예술가의 재현 능력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은 1문단의 사진술의 등장과 관련된 것이며, ‘예술이 일상의 불편한 진실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술이 주는 충격과 관련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8 관련 자료의 해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의 하트필드 작품은 자본과 히틀러의 공생 관계를 폭로한 포토몽타주 작품이며, 상업적 자본에 포섭되어 버린 아방가르드의 모습은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의 ‘예술가의 지위 상승에는 ~ 요인으로 작용했는데’를 통해 19세기에는 ‘아우라’가 예술가의 지위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㉙은 20세기 초 이후에 등장한 포토몽타주 기법의 합성 사진이므로 19세기 관점에서 본다면 ㉙에서 ‘아우라’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② 3문단의 ‘존 하트필드는 ~ 성공했다.’를 통해 ㉙은 출처가 다른 부분들을 조합해서 비관례적인 전체를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의 ‘사진술의 등장은 ~ 흔들어 놓았다.’와 3문단의 ‘존 하트필드는 재료로 쓰인 ~ 성공했다.’를 통해 ㉙은 회화를 위기에 빠뜨린 사진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체를 창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의 ‘존 하트필드는 ~ 기법으로’와 4문단의 ‘오브제의 독창적 활용으로 ~ 오랜 관습에 도전하고자 했다.’를 통해 ㉙은 사진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파괴하고 오브제에 대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9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보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산물이며, ㉡는 6문단의 ‘아방가르드조차 상업적 소비주의의 대상으로 포섭’된 사례이다. 삶과 현실을 긍정할 뿐인 예술에 대한 저항을 시도한 것은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의 ‘르네 마그리트는 ~ 상상력을 강조했다.’를 통해 전혀 엉뚱한 환경에 배치한 오브제로 인해 시각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4문단의 ‘그러나 아방가르드가 ~ 것이기 때문이었다.’를 통해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예술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삶에의 위안이라는 예술의 미덕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6문단의 ‘대중이 생각하는 ~ 판매 전략이었다.’를 통해 ㉡가 대중이 생각하는 미의 사례라는 가정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
- ⑤ ㉡는 ㉠을 휴대 전화 케이스로 전용한 것으로, 6문단의 ‘아방가르드조차 상업적 소비주의의 대상으로 포섭’된 사례로 볼 수 있다.

30 관련 자료의 해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3문단의 ‘그의 행위는 ~ 도전이었다.’를 통해 ㉠은 장인적 기술과 유일성이 예술 작품의 필수 속성이라는 예술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뱅크시는 ~ 예술을 고집한다.’를 통해 ㉡는 자본화된 제도의 포섭에 대한 저항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는 ‘자신이 앤디 워홀의 그림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를 ㉠과 같이 기성품(레디메이드)을 그대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 ② ㉠은 출품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상업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는 자신의 작품을 익명화한 것이므로 익명성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아방가르드가 제도권 문화에 포섭된 것은 예술품 시장의 팽창에 따른 미술품의 투자 수단화 경향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 제도권 문화에 포섭되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으며, ㉡는 뱅크시가 몰래 그린 그림이므로 미술관이라는 제도의 선택으로 거장화된 사례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의 ‘그림이 자본화된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을 막기 위

해’로 미루어 볼 때 ㉡가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버린 예술’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전처럼 연습하는 봉투모의고사
수능과 가장 유사한 알짜 문항만 구성

[31~35] 고전 소설+고전 시가

(가) 작자 미상, 「오유란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영·정조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한문 소설이다. 여색을 멀리하고 학문에만 전념하겠다는 인물이 친구의 계략과 기녀의 유혹에 의해 훼손(毀節)을 당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양반의 호색적이고 위선적인 생활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훼손담을 다룬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망신을 당한 인물이 자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함으로써 우정을 되찾는 것으로 결말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양반의 위선적인 삶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이생과 김생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김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 감사가 되자 그는 후원에 별당을 마련하고 이생을 그곳에 머무르게 한다. 김생은 별당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내는 이생을 위해 잔치를 열지만, 외골수인 이생은 잔치를 망쳐 버린다. 이에 김생은 기생 오유란과 공모하여 이생을 망신 줄 계략을 짤다. 이를 모르는 이생은 오유란의 유혹에 넘어가 인연을 맺게 된다. 이생은 부친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서울 길에 급히 오르던 중에 부친의 병이 회복되었으니 상경하지 말라는 기별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간다. 평양으로 가던 중 대동강가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무덤을 발견하고는 그 연유를 알아본다. 이생은 그 무덤이 자결한 오유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아 병석에 눕고 만다. 어느 날 귀신으로 변장한 오유란이 찾아와 이생을 희롱한다. 이생은 오유란의 꾀에 빠져 이승과 저승을 혼동하고, 결국 선화당에서 오유란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만다. 그제야 자신이 속은 걸 깨달은 이생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장원 급제하게 된다. 암행어사가 된 이생은 여색을 즐기는 김생에게 복수를 한 뒤, 김생과 오유란을 모두 용서하고 술자리를 베푼다.

(나) 정훈, 「우활가」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우활함을 한탄하며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려는 심정을 노래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우활하다고 보고서 탄식하는데, 이는 시대를 제대로 타고나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활'을 주제로 하여 자신을 객관적 위치에 놓고 성찰하되, 성리학적 수양의 길을 묵묵히 걷는 외로운 심정과 오로지 자연과 벗하여 탈속한 즐거움의 경지를 잘 조화시킨 작품이다. 또한 '우활'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가난하고 우활한 자신에 대한 탄식

구성

- 서사: 자신의 우활하고 가난한 삶에 대한 토로
- 본사: 자신의 우활함에 대한 한탄과 체념
- 결사: 술로써 자신의 우활함을 달랠.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서 이생은 김생과 오유란의 계교에 속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어이없어하며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나)에서 평생을 '애친정형과 충군제장을 분내사'로 여기며 살았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가난한 삶과 우활한 자신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한 인물 또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 꿈이 제시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가)에서 사건이나 이야기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특정 소재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도 시상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소재를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 가상의 공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에서 '태산', '추노'를 가상의 공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스스로를 우월하다며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변화할 것임을 추론할 수 없다.
 ④ (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 화자의 과거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화자가 과거를 직접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생은 오유란이 시키는 행동을 바로 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이는 자신이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조바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이생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크게 놀라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생이 '묘방'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유란이 계교로 이생을 속인 것은 향락을 모르고 여색을 멀리하는 이생을 골탕 먹이려는 김생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결국 이생은 오유란에게 넘어가 공부를 멀리하고 그녀와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는 향락과 여색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오유란이 죽었다고 믿는 이생은 오유란의 '묘술'로 자신도 목숨을 마쳤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보고 손가락질'을 할까 봐 '더운 날씨에 의관'을 하고 있다. 이는 이생이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오유란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으며 ‘토식’을 궁금해하는 이생에게 날이 밝으면 바로 ‘토식’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있다. ‘토식’이 오유란이 꾸며 낸 허위라는 점에서 의관을 갖추려는 이생에게 귀신의 도를 말하며 ‘꾸미거나 차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개방적인 장소에서 이생을 망신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속임수로 볼 수 있다.

⑤ 이생은 오유란이 시킨 대로 의관을 갖추지 않고 감사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감사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만히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쿡 찌르’는 것은 자신과 오유란이 꾸민 계교의 정체를 폭로하는 행위이다. 이들의 음모에 속아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이생은 감사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33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두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우랄도 우랄홀샤 그레도록 우랄홀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② ‘일간 모옥이 비 식는 줄 아뉘든가’, ‘어리고 미친 말이 늙 무일 줄 아뉘든가’ 등은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우랄함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분내사’로 여기며 살았던 지난 삶의 방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우랄’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불우한 처지가 부각되는 동시에 ‘가난하고 우랄한 자신에 대한 탄식’이라는 주제 의식이 강조된다.

⑤ ‘이바 벗님네야 우랄흔 말 들어 보소’, ‘아희야 잔 그득 부어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화자의 독백에 가깝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토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화자의 울분과 체념 등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심흔 이내 쇠를 슬허하다 어이히리’에서 화자는 평생 성리학 수양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현실에서 뜻을 실현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조와 체념의 태도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화자가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분내사’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화자의 과거의 삶이 부정적 현실과의 대립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가 과거의 삶을 뒤우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이룬 것 하나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으며, 평생의 모든 일이 우랄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평생 성리학 수양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등용이나 공명 등의 기회를 얻어 사대부로서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② 화자는 일백 번 다시 죽어도 옛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성리학 수양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사대부로서의 뜻을 실현하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화자가 ‘축타의 영언을 이제 비화 어이히며 / 송조의 미색을 얼근 늦춰 잘 홀런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성리학 수양만으로는 등용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화자가 등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평생의 모든 일이 우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랄을 거느리고 백 년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자문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희망이나 낙관적 전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이생은 김생과 오유란에게 속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분한 심정을 풀고 자신을 속인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탄식하면서 ‘태고’로 지칭되는 성현들이 살던 태평시대를 동경하고 있다. 따라서 ㉡은 사대부로서의 뜻을 실현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자가 ‘우랄흔 심흔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적 고뇌를 잊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시적이라고 한 것은 화자의 고뇌가 부정적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 고뇌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이생은 김생과 오유란에게 속은 것에 부끄러워하며 분한 마음을 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 성찰

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에서 ㉠은 사대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상과 타협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② ㉠은 오유란의 계교에 넘어가기 전의 삶, 즉 향락을 모르고 여색을 멀리하던 과거의 삶에 비교적 가까운 모습이다. 다만 ‘설분에만 뜻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애친정형과 충군제장을 분내사’로 여긴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따라서 ㉠은 과거의 삶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 ④ (가)에서 이생이 ‘설분에만 뜻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개인적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일 뿐, 이상 실현의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나)에서 ㉠은 사대부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 ⑤ (가)에서 이생은 자신을 속인 김생과 오유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그 목적에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에서 ㉠은 학문을 수양하거나 정치를 펼치는 사대부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이므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

[36~38] 현대 소설

김동인, 「태형」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감옥을 배경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운 여름날 수인으로 꽉 찬 감방에서 감방 안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줄어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태형을 받고 감방에서 나갈 줄 알았던 노인이 태형 언도를 공소한 사실을 듣게 되자 감방 안 사람들은 노인을 매도하여 태형장으로 내몰게 된다. 이를 통해 오로지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사고하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 고발

전체 줄거리

비좁은 감방 안에서 ‘나’는 미결수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감방에는 ‘나’를 비롯하여 마흔 명이 넘는 죄수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깥 공기를 쉴 수 있다는 이유로 죄수들은 공판을 기다린다. 한 노인이 공판에서 태형 90대의 판결을 받고 공소하자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노인이 감방을 떠나면 자리가 조금이나마 넓어진다는 이유로 노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노인은 결국 공소를 포기한 채 태형에 처해진다. 태형을 당하는 노인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기심 때문에 노인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괴로움을 느낀다.

36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비좁고 더운 감방 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나’와 감방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작품 속 주인공이 서술자로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관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 않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영감이 ‘나’에게 벌칙 성을 내며 달려든 것은 판결을 궁금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가 ‘태형 구십 도’ 판결을 받은 영감에게 감방에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잘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감의 반응을 가혹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섯 평이 좀 못 되는’ 감방에서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제공받거나 몸을 제대로 누이지도 못한 채로 생명을 위협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생존 본능에 힘써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물을 “물’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감방 사람들이 물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처럼 인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태형이 집행되면 영감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감이 공소했다는 말을 들은 감방 사람들이 영감을 비웃는 것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비윤리성이 나타난다.
- ⑤ ‘나’는 영감이 감방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감방 안의 자리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영감에게 공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한다. 이를 통해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38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은 영감이 감방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감방 안의 자리가 넓어졌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이기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 간수가 병인을 병감으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에서 간수들이 병인에게 물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므로 인간의 이기적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방 사람들의 공간이 좀 더 넓어진 데에서 비롯된 반응은 ㉠에만 해당한다.
- ③ ㉠과 ㉠ 모두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결핍된 방 안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병인에 대한 부러움, ㉠은 방 안의 공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에 해당한다.
- ⑤ 감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근본적 원인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감방 안에서의 생활이다. ㉠과 ㉠의 상황에서 이것이 해소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9~42] 현대시

(가)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해제 이 작품은 불교적인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한 시로, 화자가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가을 산의 풍경에서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화자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임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등과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누이의 부활을 믿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화자는 슬픔을 재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승화한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

구성

- 1연: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
- 2연: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
- 3연: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확신

(나) 기형도, 「가을 무덤-제망매가」

해제 ‘제망매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은 화자가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화자는 누이의 무덤 앞에서 누이에게 제(祭)를 올리며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힘겹게 살다 간 혈육이기 때문에 화자의 한과 슬픔은 가슴 깊이 사무친다. 그래서 화자는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부으며 죽은 누이를 위로하고 누이의 안식을 기원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누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의 부제로 사용된 향가 「제망매가」는 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작품에는 종교적 상상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정한

구성

- 1연: 죽은 누이에 대한 제(祭)
- 2~4연: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 5~7연: 힘겹게 살았던 지난 삶에 대한 회상
- 8연: 제(祭)를 통한 죽은 누이와의 정서적 교감

3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죽은 누이를 부르며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시리도록 허연 / 이 영하의 가을에’라는 표현에서 ‘시리도록’은 화자가 느끼는 감각 또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나)에서 ‘철철’, ‘딱딱’과 같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나)에서 음성 상징어는 화자의 행위 등을 부각할 뿐,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③ (가)와 (나)에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반면 (나)의 경우 누이와 함께했던 과거와 무덤에 묻혀 있는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 ④ (나)의 ‘시리도록 허연’을 공감각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공감각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화자는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슬퍼하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누이가 마치 살아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 화자가 슬픔의 순간에서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고 그 강물에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이 살아 반짝인다고 한 것은 화자가 죽은 누이의 부활 또는 재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은 누이와 관련하여 화자가 떠올린 과거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화자의 방황과는 상관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에서 ‘눈물’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돌로 눌러 죽인다’는 것은 슬픔을 견디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③ 화자는 죽은 누이의 부활을 믿고 있다. 그리고 누이의 부활은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과 같이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비유적 표현들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화자는 가을 산의 모습과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날개의 모습에서 ‘그 눈썹 두어 날’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죽은 누이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그 눈썹 두어 날’은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⑤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에서 화자는 누이를 위해 술잔을 비워 두고 있다. 이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화자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41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형클어진’, ‘결끄러운’ 등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수식어라고 할 수 있다. ‘형클어진 가슴 몇 조각’은 화자가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결끄러운 네 뼈다귀’는 화자가 누이가 죽었다는 것을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화자가 누이와 ‘악수’를 하며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누이와 교감하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눈 혈육임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누이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화자는 누이의 무덤 앞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그것은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인 동시에 누이의 처량한 모습에 대한 기억이다. ‘눈물보다 찻잔한 설움을 빨았느냐.’에서 ‘설움’은 화자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느낀 감정이며, 이는 곧 한의 정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문형 진술을 통해 한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 있는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쪼’는 누이와 함께 보냈던 가난한 유년 시절의 삶을 보여 주는 현실적 소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누이와 화자의 처지를 ‘뜨물 속의 밥덩이’에 빗대고 있는데, 이 시어 역시 힘들고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부각해 주는 현실적 소재로 볼 수 있다.
- ④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화자와 시적 대상인 누이가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이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 과정에서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자신의 영혼과 몸을 ‘휘감고’, ‘뒤흔드는’ 것을 느끼는데, 이 시어들은 동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4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화자가 누이의 재생 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 푸석이’고 척박한 공간인 ㉡에서 누이의 죽음

을 안타까워하며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함께 살았던 혈육의 죽음 앞에서 화자의 한과 슬픔은 가슴 깊이 사무친다. 따라서 ㉠은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에서 누이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 누이의 부활은 화자가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대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대상과 재회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은 대상이 이승이 아닌 저승에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지만, 화자와 대상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에서 화자는 대상의 부활을 통해 대상과의 재회를 믿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에서 화자도 대상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화자의 그리움이 투영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죽은 누이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이와의 재회는 내세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미래의 삶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에서 화자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정한을 느끼고 있다. 이는 슬픔의 감정일 뿐, 과거를 뒤우치고 후회하는 감정으로서는 볼 수 없다.
- ⑤ ㉠에서 화자는 죽은 누이의 부활을 믿으며,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절망감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에서 화자는 자신과 함께 가난한 삶을 지내 온 누이의 부재를 확인하고 슬픔과 한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43~45] 시나리오

조환유 외, 「편지」

해제 이 작품은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연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편지'는 중요한 소재로 기능한다. 환유는 투병 중에도 혼자 남겨질 정인을 걱정하며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정인이 자신의 편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환유의 죽음 이후 정인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환유의 편지를 받은 후 삶의 의지를 되찾고 환유에 대한 사랑을 이어 나간다. 또한 영화 속에 황동규의 시 「즐거운 편지」를 삽입함으로써 시의 소재 및 내용과 관련지어 환유와 정인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애뜻하고 절절한 것인지를 서정적으로 전달한다.

주제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되는 연인 간의 사랑

전체 줄거리

어느 날 정인은 서둘러 기차를 타려다 지갑을 떨어뜨리고, 이를 환유가 찾아 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된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행복한 일상을 이어 가던 중 환유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세상을 떠난다. 혼자 남겨진 정인은 괴로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슬픔에 빠져 있던 정인은 어느 날 환유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받는다. 환유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정인에게 편지가 도착하도록 해 둔 것이다. 이 편지로 인해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한 정인은 환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몇 년 뒤 환유의 분신과도 같은 나무를 정인과 아들이 함께 찾는다.

43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작품에 삽입된 황동규의 시 「즐거운 편지」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정인과 환유의 애뜻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 내나의 사랑을 /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환유에 대한 정인의 사랑이 환유가 죽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기다림의 정서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인이 환유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희망을 가지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이별을 예감한 환유가 정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③ 환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시의 내용이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된 상황과 반대되지도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이 극적인 반전을 이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

도 않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소나무는 환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로, 정인에게 환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소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유 소나무’를 끌어안은 정인의 모습을 통해 정인이 환유의 존재를 조금씩 잊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인이 환유의 반지를 끼워 보는 모습을 통해 환유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환유가 앉아 있었던 의자에 정인이 앉아 보는 모습을 통해 정인이 여전히 환유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③ 우편함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정인의 모습을 통해 정인이 환유의 편지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인이 자살을 기도할 때 시계추를 잡아 시계를 멈추었으나, 환유의 편지를 받은 이후로 궤종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정인이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음을 알 수 있다.

4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㉔에서는 누군가가 환유의 편지를 대신 보내 주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인의 심리가 드러난다. ㉔에서 편지 전달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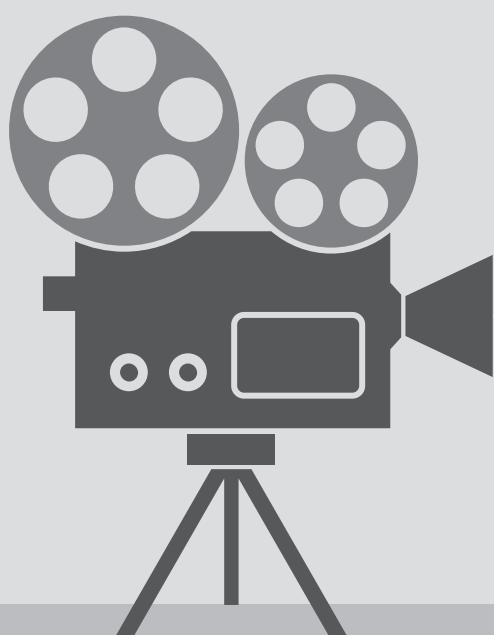
- ① ㉔는 정인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관객이 정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㉔는 유서의 내용을 통해 정인이 약초병을 집어 드는 행동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㉔는 환유의 편지 내용을 통해 환유가 죽기 전 정인에 대한 걱정으로 편지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④ ㉔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환유의 목소리를 삽입시켜 자신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정인을 위로하려는 환유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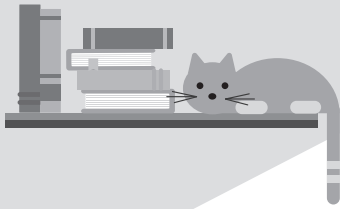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최고난도 봉투형 실전모의고사
최신 경향 반영한 킬러문항으로 1등급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정답과 해설

실전 모의고사
3회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②	07 ③	08 ⑤	09 ③	10 ③
11 ③	12 ⑤	13 ⑤	14 ②	15 ②
16 ④	17 ⑤	18 ⑤	19 ③	20 ⑤
21 ②	22 ②	23 ③	24 ③	25 ⑤
26 ⑤	27 ②	28 ⑤	29 ④	30 ②
31 ③	32 ⑤	33 ⑤	34 ④	35 ⑤
36 ③	37 ①	38 ⑤	39 ③	40 ②
41 ④	42 ⑤	43 ④	44 ⑤	45 ⑤

[01~03] 화법

01 말하기 전략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청중의 통념을 묻는 부분은 강연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는 오늘 집단 지성과 관련하여 ~ 조건 등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와 같이 발표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개미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사례의 연구자가 미국의 저명한 곤충학자 ‘힐러’임을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④ ‘네, 좋은 답변들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와 같이 청중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⑤ ‘우리 사회의 문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지닌다면 갈등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요?’와 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청중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02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발표자는 문제 상황과 마주하게 될 때,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여럿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좋은 해결 방안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ㄷ에서는 자신의 통학 경로를 스스로 분석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은 개미 외에 다른 곤충이 집단 지성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사례를 찾으려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조사할 내용을 떠올리며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ㄴ에서는 편향된 의견만 갖고 있는 구성원이 모인 집단이 발휘하는 집단 지성은 오히려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강연에서 학교생활 중 많은 문제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ㄹ은 ‘문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떠올리며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ㄴ은 강연을 들은 후 원자력 발전의 폐기 여부 결정에 대해 기존의 생각과 달라진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며 들었다고 할 수 있다.

03 매체 활용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개미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경로는 지면 특성을 감안하여 거친 지표면에서 이동해야 할 거리를 줄이고, 매끄러운 지표면에서 이와 반대로 이동 거리를 늘린 경로이다. 따라서 제시할 자료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자료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경로들은 서식지에서 먹이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로들이므로 먹이를 찾지 못하더라도 개미들이 여러 경로를 탐색함을 제시하는 자료 1로 적합하며, 개미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경로로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경로들은 서식지에서 먹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로 볼 수 있으므로 자료 2로 적합하며 따라서 개미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경로로 볼 수 없다.
 ③ 최단 경로로, 지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개미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경로로 볼 수 없다.
 ⑤ 제시된 경로는 거친 지표면에서 이동할 거리가 늘어 있고, 매끄러운 지표면에서는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경로이다. 따라서 개미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경로로 볼 수 없다.

[04~07] 화법+작문

04 말하기 과정 분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학생 2’는 ‘학생 1’의 견해에 대해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항상 볼 수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개인적 견해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약을 접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민서’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음료를 드릴 사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어.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 드리는 건 어떨까?’와 같이 선생님들을 예로 들고 있다.
- ③ ‘학생 3’은 ‘민서의 공약이 의도는 좋은데 제공할 음료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천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학생 2’는 뉴욕의 우산 대여 사업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해.’와 같이 밝히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학생 2’의 ‘먼저 학교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학생 3’은 ‘스스로 노력해 보자.’라고 말하며 학생회 중심의 우산 기부받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05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반기겠’음을 언급하며 축구 공을 사자는 견해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텃밭에 심을 상추 모종을 사는 것을 제안하며 자신이 생각한 대안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지는 않았다.
- ③ ㉠은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방이 발화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은 상대방에게 되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0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 ‘학생 1’은 ‘대여할 수 있는 장소와 대여 방법도 함께 알려 줘야’ 함을 말하고 있으나 (나)에는 공유 물건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와 대여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며칠 전에 실내화가 ~ 비까지 오더라고.’와 같은 경험을 밝혔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실내화가 찢어진 상황을 제시하여 대여 사업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에서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나)에는 이 점을 반영하여 ‘한여름 땀 흘려 가며 분리수거를 하시던 분’께 했던 민서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실제 공약을 들은 사람은 ~ 공약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언급해야 할 것 같아.’와 같이 청중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나)에는 이 점을 반영하여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더 깨끗한 학교 환경으로 이어질 것’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에서 ‘학생 1’은 마지막 발화에서 ‘학생회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설문 조사에 따른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학생회 활동을 ‘학교 홈페이지의 학생회란을 통해 매월 1일에 공개’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07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B]에서 ‘학생 2’는 ‘단체를 이끌었던 경험을 부각’할 것을 조언했고, ‘학생 3’은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드러내며 당선 후의 다짐을 밝히는 것’을 조언했다. ③에는 지역 동아리 연합회 회장 활동과 같이 단체를 이끌었던 경험과 ‘공유, 나눔, 공개’와 같이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 ‘틀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와 같은 당선 후의 다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누며 공개’와 같이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으나 단체를 이끌었던 경험과 당선 후의 다짐은 드러나지 않았다.
- ② ‘공유, 나눔, 공개’와 같이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제시되어 있으나 단체를 이끌었던 경험과 당선 후의 다짐은

드러나지 않았다.

- ④ 지역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같이 단체를 이끌었던 경험과 당선 후의 다짐은 드러나 있으나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공유, 나눔, 공개’와 같이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제시되어 있으나 단체를 이끌었던 경험과 당선 후의 다짐은 드러나지 않았다.

[08~10] 작문

08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초고’에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드러나 있으나 그 대안의 홍보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아파트 단지에서의 다툼, 시청 게시판 사례 등을 밝히고 있다.
- ② 두 번째 문단에서 ‘본래 고양이는 살던 영역을 지키며 사는 습성이 있다.’와 같이 고양이의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세 번째 문단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네 번째 문단에서 TNR와 같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9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A]에서는 TNR 추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TNR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참고할 때, TN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A]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TNR 사업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TNR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TNR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A]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다른 야생 동물도 TNR 대상 동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와 [A] 모두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TNR 사업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내용은 [A]와 상반된 내용이며, <보기>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에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과 같은 행정 규칙을 밝히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TNR 실시 방법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또한 [A]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편집 담당자가 검토하고 제시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게 된 계기는 ‘초고’의 두 번째 문단에 ‘반려동물이 었다가 버려진 고양이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길고양이 개체 수의 증가 원인은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길고양이의 생태적 습성은 언급되어 있으나 수정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②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정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은 ‘초고’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요약하는 것은 수정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

[11~15] 문법

[11~12] 된소리되기의 음운적 조건 및 적용 순서

해제 이 글에서는 먼저 된소리되기가 발생하는 음운적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데, 된소리되기는 형태론적으로 큰 제약이 없어서 특정 음운적 조건만 형성되면 예외가 없이 발생함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한 단어 내에서 발생할 때 둘 사이의 적용 순서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하는 순서로 보는 것이 설명력을 지닌다고 논증하고 있다.

주제 된소리되기의 음운적 조건과 된소리되기 및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 순서

11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국수’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옆집’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뿔개’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세 단어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적 조건을 형성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세 단어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적 조건을 형성하지만, ‘뚝질’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몹시’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멋지다’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세 단어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적 조건을 형성하지만, ‘헛기침’은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낮빛’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갑자기’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세 단어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적 조건을 형성하지만, ‘검쟁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딱지’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젓소’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세 단어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적 조건을 형성하지만, ‘입버릇’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접시’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푹고추’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2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 ‘볶고[불꼬]’는 ‘볶고 → 불고 → [불꼬]’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㉔에 해당한다.

- ㉔ ‘밟고[밟:꼬]’는 ‘밟고 → 밟꼬 → [밟:꼬]’와 ‘밟고 → 밟고 → [밟:꼬]’의 경우 모두 올바른 발음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㉔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㉓ ‘침범[침뎌]’은 ‘침범 → 침뎌 → [침뎌]’과 ‘침범 → 침뎌 → [침뎌]’의 경우 모두 올바른 발음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㉓에 해당한다.
- ㉒ ‘흙과[흙꽈]’는 ‘흙과 → 흙꽈 → [흙꽈]’와 ‘흙과 → 흙과 → [흙꽈]’의 경우 모두 올바른 발음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㉒에 해당한다.
- ㉑ ‘떨지[떨:찌]’는 ‘떨지 → 떨지 → [떨:찌]’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㉑에 해당한다.

13 문장 성분의 개념, 특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문장으로 ㉑에 들어가기 적절한 예 문은 ②, ④, ⑤이다. ①과 ③의 ‘모두’와 ‘일찍’은 부사이다. ㉑의 예문인 ‘그녀는 빨간 옷을 입고 나왔다.’의 ‘빨간’은 용언 ‘빨강다’의 관형사형 ‘빨간’이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다.

14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다.’의 ‘들리다’는 ‘듣다[㉑]’의 피동사이다. ‘듣다[㉒]’의 사동사가 쓰인 예문으로는 ‘아이들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렸더니 아주 좋아한다.’ 정도를 들 수 있다.

15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㉑과 ㉒에는 명사가, ㉓와 ㉔에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 ‘-이’나 ‘-의’가 쓰였고, 부사 파생 접미사로 ‘-이’가 쓰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㉑, ㉒에는 각각 ‘노퍽(늑+-이)’와 ‘기피(豎+-의)’가, ㉓, ㉔에는 각각 ‘노퍽(늑+-이)’와 ‘기피(豎+-이)’가 들어가야 한다.

[16~20] 인문

‘분석 철학과 러셀의 철학’

해제 이 글은 분석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면서 분석 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러셀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러셀은 기호 논리학을 체계화하였으며 기술 이론과 함께 논리 원자주의를 주장하였다. 분석 철학자들은 철학이란 개념의 정확한 의미와 그것들 간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분석 철학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주제 분석 철학과 러셀 철학의 특징

구성

- 1문단: 분석 철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 2문단: 러셀의 기호 논리학
- 3문단: 러셀의 기술 이론
- 4문단: 러셀의 논리 원자주의
- 5문단: 분석 철학의 흐름

16 세부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2문단을 보면, 명제 함수 논리학에서는 일상의 언어들을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드러내는 기호로 바꾸느냐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제 함수 논리학에서는 일상 언어를 그 뜻을 드러내는 기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보면, 전통적 논리학이라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삼단 논법의 논리학인 것과 달리, 러셀의 기호 논리학은 $p \supset q$ 의 형식처럼 논리를 기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을 보면, 분석 철학은 철학적 사고의 대상이 언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을 보면, 이상 언어주의자들은 일상 언어가 극히 애매하게 쓰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일상 언어의 비논리적 구조 때문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을 보면, 기호 논리학에서 이론의 진위는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들과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호 논리학을 명제 함수 논리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핵심 정보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을 보면, 문법적 의미와 논리적 의미는 다르고, 문법 구

조가 반드시 논리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법 구조는 논리 구조를 반영하므로 명제의 참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제의 문법적 구조를 해명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보면, 기술 어구는 특정한 개별 대상을 가리키는 듯 보이는 어구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고유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위장한 기술 어구인 경우가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보면, 기술 이론은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이 없고 무의미한 기술 어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을 보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 언어가 명확하게 해명 되어야만 그 명제에 대한 진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내용의 비판적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4문단을 보면, 러셀은 ‘논리 원자주의’를 통해 모든 현상이나 언어는 원자적 사실의 논리적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여러 개의 원자적 명제의 단순한 결합체로만 볼 수 없으며 이것이 옳다고 인정되려면 원자적 사실이나 그것들의 결합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어떤 일반적 사실이 별도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적 사실이나 그것들의 결합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반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언어가 원자적 사실들의 논리적 관계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과 <보기>를 보면, “모든 백조는 희다.”와 같은 일상 언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언급도 없으며 ‘논리 원자주의’에서도 일상 언어들의 그 뜻을 밝혀 기호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② <보기>를 보면,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여러 개의 원자적 명제의 단순한 결합체로만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백조는 희다.”가 여러 개의 원자적 명제가 결합된 명제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보기>를 보면, 우리는 모든 경험적 지식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문단을 보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의미적 단위는 원자적인 명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한 이론의 전체적인 진위는 최소한의 의미적 단위인 분자적 명

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를 보면, 어떤 일반적 사실이 별도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일반적 사실이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세부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에서 한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과 달리, 러셀은 한 언어의 의미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보면, 러셀이 주장한 분석 철학의 경우 철학적 문제는 언어의 의미에 대한 혼동에서 생기는 문제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보면, 러셀은 언어의 논리적 분석과 해명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분석 철학은 언어의 의미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된다고 주장한 전기와 ‘사용’을 통해서 이해된다고 주장한 후기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④ 5문단을 보면, 러셀과 같은 이상 언어주의자들은 일상 언어의 애매성으로 인해 이상적 언어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에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대로의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원자적 사실로 분해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으며, 4문단을 보면, 러셀은 논리 원자주의를 주장하면서 모든 존재가 원자적 사실로 분해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㉔의 문맥적 의미는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의 피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곡이 잘 안 쓰이면 무작정 길을 떠나 영감을 얻어야만 돌아온다.’의 ‘쓰이다’는 ‘머릿속에 떠오른 곡을 일정한 기호로 악보 위에 나타내다.’의 피동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문맥적 의미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

다.’의 피동에 해당한다.

② ⑥의 문맥적 의미는 ‘대상을 평가하다.’이다.

③ ③의 문맥적 의미는 ‘관계를 맺다.’이다.

④ ④의 문맥적 의미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이다.

[21~25] 사회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변화’

해제 이 글은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변화를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트손을 중심으로 한 전통 시기를 시작으로 실증주의 지리학, 인본주의 지리학, 구조주의 지리학,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소 발견하기’와 ‘장소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변화

구성

- 1문단: 전통 시기와 실증주의 지리학에서의 장소와 공간
- 2문단: 인본주의 지리학에서의 장소와 장소성
- 3문단: 구조주의 지리학에서의 장소와 장소성
- 4문단: 장소 발견하기의 개념과 유형
- 5문단: 장소 만들기의 개념과 등장 배경
- 6문단: 장소성의 의의

21 세부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을 보면, 펠프가 주장한 무장소성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만 무장소성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보면,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만드는 특성이라는 장소성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문단을 보면, 집단의 정체성이나 권력 관계 등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성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을 보면, 장소 발견하기란 장소성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인본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을 토대로 한 것과 사회적 구성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유형화됨을 알 수 있다.
- ④ 5문단을 보면, 장소 만들기가 주목받게 된 두 가지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을 보면, 진정함과 비진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의 장소 경험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지의 여부임을 알 수 있다.

22 세부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3문단을 보면, 매시가 지구적인 이동이 가능한 시대에는 장소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구적 장소감’이 요구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보면, 투안은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

람들이 장소에 대한 '장소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을 보면, 펠프는 집을 가장 진정한 장소로 보았으며, 장소의 본질은 내적 경험에 있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을 보면, 펠프는 장소와 장소 경험 주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장소의 정체성'으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을 보면, 매시는 정착이 지배적인 사회적 조건일 때에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경우와 같이 내부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장소감이 형성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B는 과거부터 현대까지에 이르는 장소성이 변화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에 드러난 B의 장소성은 본질적 장소성으로,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고려에서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B의 장소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B에 대해 역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다.
- ② (가)의 B는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 B의 장소성을 발견하고 탐구한 것은 사회적 구성론의 입장에서의 '장소 발견하기'에 해당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지역 축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살 만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안정된 정체성과 애정을 가지고 살 만한 터전, 즉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장소 만들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B는 현대에 관광지로서의 장소성을 갖게 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나)의 지역 축제는 관광객이나 기업 유치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 (나) 모두 '장소 마케팅'의 예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24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문단과 3문단을 보면, 장소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고 경계가 분명한 정적 실체를 지닌다고 주장한 것은 ㉠이 아니라 ㉡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보면, ㉠은 공간이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

니라 추상적으로 가정된 동질적 영역을 의미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을 보면, ㉡은 지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장소감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을 보면, ㉢은 ㉠과 달리 공간에서 공간의 점유자인 인간이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 가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을 보면, ㉣은 ㉡과 달리 장소를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형성된,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이다.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은 '탐구'의 사전적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훨씬 좋은 위치로 올라섬.'이다.
- ② ㉠의 사전적 의미는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이다.
- ③ ㉣의 사전적 의미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이다.
- ④ ㉡의 사전적 의미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이다.

『쇠라의 점묘법에 담긴 과학적 원리』

해제 이 글은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의 '점묘법'에 담긴 여러 과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쇠라는 '현대 색채론'과 슈브렐의 이론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그림이 감상자의 눈에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쇠라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그림 속의 색깔을 모두 분해한 후 수천 개의 색점을 화면에 찍어서 구성하였다. 쇠라의 점묘법은 기하학적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주제 쇠라의 점묘법에 담긴 과학적 원리

구성

- 1문단: 쇠라의 미술에 영향을 미친 과학적 연구
- 2문단: 색의 구성과 보색 대비의 효과
- 3문단: 색이 눈에 인지되는 원리
- 4문단: 보색 처리 이론과 잔상
- 5문단: 쇠라의 미술의 특징
- 6문단: 쇠라의 미술의 의의

2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은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의 '점묘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점묘법'에 나타난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쇠라의 '점묘법'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쇠라의 '점묘법'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쇠라의 '점묘법'의 한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쇠라의 '점묘법'이 변화하게 된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4문단을 보면, 보색 처리 이론에 따라 초록색을 일정 시간 동안 바라본 다음에 흰 종이를 바라보게 되면 빨간색이 보이는 잔상이 일어나게 되지만, 초록 원뿔 세포는 ㉠이므로 ㉡이 활성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보면, 파랑 원뿔 세포는 파장이 420nm인 빛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파랑 원뿔 세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3문단을 보면, ㉠은 초록 원뿔 세포, ㉡은 빨강 원뿔 세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파장의 빛이 들어오면 ㉠과 ㉡은 각

각 B와 C만큼 반응하게 되고 뇌는 노란색을 인지하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3문단을 보면, 특정 파장의 빛은 두 종류 이상의 원뿔 세포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의 정도 역시 서로 달라, 뇌는 각 파장에 대한 각각의 원뿔 세포들의 반응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색을 식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 파장의 빛과 A 파장의 빛이 들어올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과 ㉡의 반응 정도가 다르므로, 뇌는 서로 다른 색을 인지하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3문단을 보면, ㉠, ㉡, ㉢은 원뿔 세포로서 각각 특정 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막대 세포가 명암을 구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달리 색을 인지하도록 기능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5문단을 보면, 쇠라는 눈에 보이는 색을 대상의 색, 대상에 닿는 빛의 색, 근접한 대상들에 의해 반사되는 색으로 각각 분해한 후 색점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쇠라가 눈에 보이는 색 중에서 대상의 색을 배제하고 대상에 닿는 빛의 색을 중심으로 여자의 모습을 표현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을 보면, 쇠라는 그림 속의 대상뿐만 아니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에도 보색 대비를 활용하는 '보색 테두리'를 통해 시각적 대비를 극대화했음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을 보면, 쇠라는 작품을 보는 이의 눈에서 색들이 혼합 되도록 작은 붓질을 사용하여 무수한 점들로 그림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을 보면, 쇠라는 경계 부분에서 밝기를 활용하여 명암의 대비를 높여 줌으로써 대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헤일로 효과'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을 보면, 밝은 영역보다 어두운 영역에 원래 대상의 색과 함께 보색을 사용함으로써 보색에 의한 명암 표현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세부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5문단을 보면, 쇠라는 병치 혼합의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보기>를 보면, 모네는 물감을 섞어 색을 만드는 감산 혼합

의 방식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보면, 쇠라는 빛의 혼합과 색의 혼합이 다름을 밝힌, 루드의 '현대 색채론'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을 보면,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점묘법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쇠라는 빛의 혼합과 색의 혼합이 다름을 밝힌 연구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그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1문단을 보면, 쇠라는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겪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의 색채학과 광학 이론을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를 보면, 아주 미미한 빛의 변화도 실재와 그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네는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을 보면, 쇠라는 감상자의 눈에 그림이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보기>를 보면 모네는 사물을 인식하는 순간의 주관적인 실재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 세부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4문단을 보면, 보색 처리 이론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만, 보색 처리 이론의 한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보면, 색이 기본색과 혼합색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 ③ 6문단을 보면, 쇠라의 미술이 후대에 입체파를 비롯하여 기하학적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을 보면, 보색 관계인 두 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립적인 색들이 충돌하면서 서로의 색을 강화하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을 보면, 쇠라에게 영향을 준, 색채학과 광학 이론의 사례로는 슈브렐의 연구와 루드의 '현대 색채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1~34] 고전 시가+현대시

(가) 신희, 「넋7에 히오라바 ~」

해제 광해군 때 대북파와 소북파 사이의 당쟁을 직접 경험한 작가가 당쟁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초장의 '히오라비'는 강자를, 중장의 '고기'는 약자를 의미하고, 종장의 '훈 물'은 같은 나라 또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를 '히오라비'와 '고기'의 관계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당쟁을 그치고 화평하기를 소망함.

(나) 작자 미상, 「굼병이 매암이 되야 ~」

해제 작자 미상의 시조로, '굼병이', '매암', '거미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벼슬자리에 오르더라도 주위를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여기서 '매미'가 높은 나무에서 소리를 내어 운다는 것은 벼슬자리에 올라 권세를 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미줄'은 주위를 경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권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비유한 시어로, 벼슬길의 험난함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벼슬길의 험난함을 경계함.

(다) 이동순, 「개밥풀」

해제 이 시의 제목인 '개밥풀'은 흔히 '개구리밥'이라 불리는 식물을 의미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순환 속에서 개밥풀의 번성과 시련, 그리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봄의 번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민중들의 모습을 개밥풀에 빗대어 억압받는 민중의 비애와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주제 억압받는 민중의 비애와 끈질긴 생명력

구성

- 1~15행: 봄철·초여름의 개밥풀의 번성
- 16~23행: 여름·장마철의 개밥풀의 시련
- 24~28행: 가을철 개밥풀의 비애
- 29~31행: 겨울철 개밥풀의 끈질긴 생명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에서는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조커니와'에서는 높은 벼슬에 오르자 권세를 부리는 모습을 청각적 심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는 '휘파람 불며 불며 저어가노라', '개밥풀의 함성',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등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민중들의 당당하면서도 힘찬 모습과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나,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가)에서는 시구를 반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다)에서는 ‘땀도는 개밥풀’,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등에서 시구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가)에서는 초장과 중장의 ‘넋 7에 히오라비 므스 일 셔 잇는다 / 무심흔 저 고기를 여어 므스흔려는다’에서 의문문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서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서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외형이 변하는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 ‘굼벥이’에서 ‘매암’으로 대상의 외형이 변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에서 ‘개밥풀’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처한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외형이 변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겨울 눈바다’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에서 ‘너희들’이 지시하는 것은 바로 위의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로’, [E]는 다가오는 봄의 번성이라는 희망을 품고 희생을 감내하는 ‘개밥풀’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E]가 희망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개밥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의하면 [A]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 된다. [A]의 ‘미풍’의 사전적 의미는 ‘약하게 부는 바람’으로 시상 전개상 이는 봄철에 부는 봄바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 ‘스크럼’은 여럿이 팔을 바짝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는 부정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대응해 나가는 ‘개밥풀’의 연대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열기’, ‘음력 사월’이라는 시어를 통해 초여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 수확’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라는 내용을 통해 논을 수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개밥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큰비’, ‘장마’ 등의 시어를 통해 여름철 장마를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맛비에 떠밀려 뿔뿔이 흩어지

고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 ‘개밥풀’에게 닥친 시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추풍이 우는 달밤’, ‘귀뚜라미’ 등의 시어를 통해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물을 찍어 내며’, ‘숨죽이고 운다’ 등을 통해 숨죽이며 서럽게 살아가는 ‘개밥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을 고려했을 때, ㉠은 ‘개밥풀’의 씨앗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봄의 번성’은 다시 올 봄에 개밥풀 씨앗이 번성하게 된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밥풀’을 억압하는 세력인 ‘귀뚜라미 방울새’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흔 물’은 같은 물이라는 의미로, ‘히오라비’와 ‘고기’가 공존하는 ‘넋 7’을 의미한다.
- ② ‘그’는 나무 위에 있는 ‘거미줄’을 지시하는 말로, ‘매암’이 항상 조심하며 경계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 ③ ‘그들’은 7행의 ‘방계 물장군들’을 지시하는 말로, ‘방계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 결코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라는 내용을 통해 개밥풀의 생태를 방해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화자는 ‘개밥풀의 함성’ 이전에는 개밥풀을 ‘저희들’이라고 지칭하다가, 그 이후부터 개밥풀을 ‘우리’라고 지칭한다. 동류 의식이란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개밥풀’을 ‘우리’라고 지칭하는 것은 화자가 개밥풀에게 동류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면 ‘음력 사월 무논의 개밥풀의 함성’은 4·19 민주주의 혁명, ‘어느 날 큰비’는 이듬해의 5·16 군사 정변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는 4·19 민주주의 혁명 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과 희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히오라비’는 강자를, ‘고기’는 약자를 나타내는 말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할 때 이 둘의 관계는 대북파와 소북파 간

의 당과 싸움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땅속에 있는 ‘굴병이’는 아직 벼슬에 오르지 않은 상태 또는 벼슬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매암’이 되어 날아갔다는 것은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벼슬을 통해 지위와 신분이 상승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매암’이 나무 위에 있는 ‘거미줄’을 경계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엔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언젠가는 ‘거미줄’에 걸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거미줄’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 주위를 경계하지 않으면 권세를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다)의 ‘개밥풀’은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민중들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 제시된 ‘추풍이 우는 달밤’에 숨죽이고 우는 ‘개밥풀’의 모습은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에 의해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비애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38] 현대 소설

서정인, 「후송」

해제 티나이투스라는 희귀한 궂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자신의 병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의 비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는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군의관들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증세에 대해 설명하지만 군의관들은 그의 말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다.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주인공은 자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또한 개인의 진실을 계속적으로 묵살하는 군대 조직을 통해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주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정신적 상처

전체 줄거리

티나이투스라는 희귀한 궂병을 앓는 성 중위는 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포 사격장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다. 성 중위는 전에 후송을 위해 군의관을 찾아갔으나 계속해서 후송 불요 판정을 받았다. 성 중위는 의무 참모의 도움으로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청력 테스트를 하게 된다. 성 중위는 야전 병원에서 선입관에 사로잡힌 군의관을 만나지만 수도 육군 병원에서 작성된 의견서에 힘입어 후송 승인을 받는다. 후송 병원으로 이송된 성 중위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선입관을 가진 군의관을 만나게 되고,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조직에 의해 묵살되는 경험을 한다. 결국 그는 부산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후송된다.

35 서사 구조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그때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더구나 그것을 바라지는 더욱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 중위는 웃지 않았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의식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물들 간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 ②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③ 여러 인물들이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 않다.
- ④ 인물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탄환이 떨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며 피로가 온몸을 습격해 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후련해져 있었다.’라는 내용에서 ㉗를 통해 성 중위는 후련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련함이란 답답하거나 갑갑하여 언짢던 것이 풀려 마음이 시원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린 그는 놀랐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웅크리고 선 자리에서 무서움에 떨었다.’라는 내용에서 ㉘를 통해 어린 성 중위가 무서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리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밖에는.’이라는 내용을 통해, ㉗는 성 중위가 특정인을 의식하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㉘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살팽이를 돌로 맞춰 죽인 것이므로, 어린 성 중위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빈 깡통을 본 순간, 그는 그것을 없애 버리고 싶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㉗ 또한 성 중위 내면의 폭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㉘는 ㉗와 달리 성 중위의 내면에 숨어 있는 폭력성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그의 등에 날쌔 살팽이가 맞아서 더구나 죽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살팽이는 거짓말처럼 픽 쓰러졌다.’라는 내용을 통해 ㉘는 성 중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빈 깡통을 향해 총을 쏜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맞지만, ‘격발 반동은 쾌감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㉗가 성 중위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살팽이에게 돌을 던진 행위를 충동적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꾸지람을 듣고 나자 그의 무서움은 적이 풀렸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㉘는 성 중위에게 무서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일 뿐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그야 그렇지요. 안 받는 거보다 받는 게 낫지요. 그뿐만 아니라 수도 병원이 시설이 쥔 나아요. 오디오미터도 부속 병원과 수도 병원에밖에 없습니다.’라는 군의관의 말을 통해, 수도 병원에서 성 중위가 받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군의관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적당한 치료법이 없어요. 약물도 별로 없고……. 오디날이란 약이 시장에 나와 있긴 한데 별로 신통하질 못해요.’라는 군의관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일종의 신경 외상입니다. 포병 장교에게 많지요.’라는 군의관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병들이 농담으로 ‘성 중위님을 안 태워 줘서 그랬어요, 그 새끼들.’이라고 한 말에 대해 성 중위가 웃지 않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엄마는 그를 꾸짖었다. 그는 울었다. 엄마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사건은 타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체는 사건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는 타율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 ‘그’는 전적으로 타율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건의 타자성이란 사건이 지니는 우연적이고도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의미한다. 자동차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사고 역시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의 타자성과 관련이 있다.
- ② ‘그’는 여태까지 보아 온 참혹한 사고보다 자동차 사고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는 자신이 했는지 모를 저주가 너무도 빠르고 선명하게 실현된 데에 대한 놀라움이다. 즉, 사건이 지니는 우연적이고도 예측 불가능한 속성으로 인해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그’가 ‘사고자들과의 동일시 의식’을 느낀 이유는 사건에 있어서 타율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신과 사고자들 모두 같기 때문이다.
- ④ ‘그’가 죽음이 자신을 스쳐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고를 피한 것도 우연이고 사고를 당한 것도 우연이라면, 자신도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9~4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해제 이 작품은 양반가를 배경으로 숙영과 선군의 애정담을 다루고 있다. 선군과 숙영이 전생에 천상계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와 애정을 우선시하는 자식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 후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된 것을 반영한다.

주제 현실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정

전체 줄거리

선군은 꿈에서 선녀인 숙영을 만난 후 숙영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게 된다. 상사병에 시달리던 선군은 결국 하늘이 정해 준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숙영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선군은 부모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다. 길을 떠나면서도 선군은 숙영을 그리워하여 밤에 몰래 집으로 돌아온다. 한편 선군의 아버지 백공은 밤중 남자의 목소리가 숙영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다. 평소 숙영을 질투하던 시비 매월은 숙영의 행실이 부정하다고 거짓으로 백공에게 고하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숙영은 자결을 한다. 과거 급제 후 집으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군은 매월을 처벌하고, 옥황상제의 은덕으로 재생한 숙영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낸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선군은 낭자가 준 금동자는 상 위에 올려놓고, 화상은 병풍에 걸어 두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기이한 보배로 여겨 구경하게 되면서 선군의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게 된다. 선군이 병풍의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진세의 속객이요,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오?’라는 선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군의 부모는 아들의 병세가 심상치 않자 그 이유를 묻지만, 선군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④ 낭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선군을 설득하며 노자를 준비해 주고, 선군은 마지못해 과거 길에 오른다.
 ⑤ 선군이 주막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인은 선군을 걱정하며 안타까워한다.

40 작품의 구조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은 낭자를 그리워하며 병에 걸린 선군이 낭자를 잠시나마 만나 그리운 마음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에 등장인물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에 등장인물의 의구심이 심화되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에는 선군과 낭자의 전생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에는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이 암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과 ㉡ 모두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41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에서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과 낭자와의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을 내세워 부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고, [B]에서는 임신양명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임을 내세워 선군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남의 이목을 설득의 근거로 삼는 것은 [B]에만 해당한다. 이는 [B]의 ‘세상 사람들의 꾸지람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십시오.’에서 드러난다.
 ② [B]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낭자와의 이별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세우며 부모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가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B]는 상대방 견해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42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선군이 과거 길에 올랐다가 다시 집으로 숨어든 것은, 임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와 숙영 낭자와의 사랑이라는 개인적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군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인물 간

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군의 꿈에 나타난 남자는 선군에게 자신들이 선녀와 선관으로 천상에서 만나 연분을 맺었다고 말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남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사에 무심히 지내던 선군 앞에 남자가 나타나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건네는데, 이는 남자가 홀연히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이 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 ③ 선군은 남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지만 부모에게는 차마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즉 조선 시대에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의 감정이 억압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선군의 부모는 선군에게 과거 길에 오를 것을 재촉한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유교적 이념 중에서도 입신양명이라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3~45] 극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해제 1991년 ‘연극 영화의 해’를 기념하여 창작된 이 작품은, 연극을 하는 배우들의 이야기에, 자식들이 죽을 끓이다가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극중극(劇中劇)의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선 지 십 년이 지난 후 만형은 정승이 되어 어머니와 겉모습이 똑같은 여인을 데려오고, 둘째는 승려가 되어 불상을 가져오고, 막내는 떠돌이 광대가 되어 각시광대를 데려온다. 여기서 만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 둘째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 막내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형, 둘째, 막내는 각각 정치, 종교, 연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각시광대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연극의 가치에 대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예술의 가치와 의의

전체 줄거리

열두 명의 자식을 키우는 가난한 집의 홀어머니가 어느 날 죽 끓이는 솥 앞에 치마저고리만 남겨 두고 사라진다. 그 죽을 먹은 만누나와 여덟 자식은 실성하고, 늦게 와서 죽을 먹지 못한 세 자식은 10년 기한을 두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각각 정승, 승려, 광대가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찾는다. 기약한 10년이 되어 열두 남매가 모이고, 정승이 된 만형은 어머니와 똑같은 외모의 여인을 찾아오고, 승려가 된 둘째는 불상을 찾아오고, 광대가 된 막내는 각시광대를 찾아온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자에게 어머니의 치마저고리를 입혀 본 결과 각시광대만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춤을 춘다. 이에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은 각시광대를 어머니라 부르며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춘다.

43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차라리 너 같은 광대가 부럽구나!’라는 만형의 말을 통해, 만형은 광대가 되어 괴상한 옷을 입고 있는 막내의 처지가 정승 자제 대신에 중국으로 볼모가 되어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만형과 둘째는 탈을 쓴 막내를 보고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지만, 막내가 탈을 벗으며 ‘나는 막내요, 막내!’라고 하자 만형은 ‘네가 어찌 이 모양이냐?’라고 하며 곧 막내임을 알아본다.
- ② ‘나는…… 나는…… (하인들의 감시하는 시선을 느끼고 말머리를 돌리며) 막내야, 나는 소피 마렵다.’라는 만형의 말을 통

해 소변이 마려운 척을 하는 사람은 막내가 아니라 만형임을 알 수 있다.

- ③ ‘나는 정승 자제 대신에 중국으로 볼모 되어 가야 한다.’라는 만형의 말을 통해, 그가 사신이 아닌 볼모로 감을 알 수 있다.
- ⑤ ‘내 운명이 야속하다. 나는 정승 자제 대신에 중국으로 볼모 되어 가야 한다. 한번 가면 언제 올지, 돌아올 기약 없다!’라고 만형이 막내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난처한 사정을 말하는 사람은 막내가 아니라 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E]는 막내와 만형이 하인들의 눈을 피해 서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내용으로, 삼 형제의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형과 막내가 옷을 바꿔 입은 것은, 만형이 하인들 몰래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는 배역에는 변함이 없고 옷만 바꾸어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들이 서로의 배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통해 연극이 곧 환상임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막내가 관객들을 ‘수많은 옷’이라고 하며 ‘돈 많은 사장님의 옷’, ‘가난한 봉급쟁이의 옷’이라고 관객들을 직접 지시하는 내용으로, 관객과 배우가 존재하는 배우들의 공간에 해당한다. 이처럼 관객을 극 중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극에 대한 관객의 몰입, 즉 감정 이입을 방해하여 연극이 극적 환상일 뿐임을 경험하게 한다.
- ② [B]는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으므로 이는 배우들의 공간에 해당한다.
- ③ [C]에서 만누나와 여덟 자식들은 만형과 둘째가 만났음을 관객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남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찾으러 떠난 삼 형제의 상황을 알려 주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자식들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④ [D]는 어머니를 찾아 나선 삼 형제가 우연히 만나 그간 자신들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삼 형제의 공간에 해당한다.

서 ‘운명’의 의미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맡게 된 배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극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배역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극이나 인생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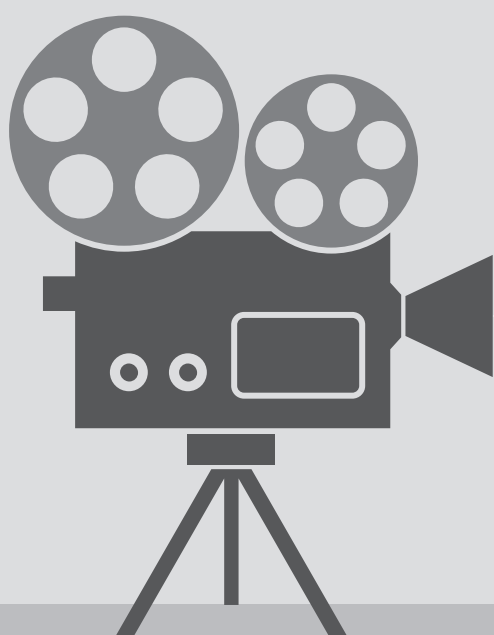
- ① ‘오늘 연극에서 누가 왕이냐는, 누가 왕의 옷을 입느냐에 달렸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옷’은 연극에서 배우들이 맡는 배역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배우로서 입어야 하는 옷에는 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과 꼭 맞는 옷을 입어야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맞는 옷이란 드물거든요.’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관객석을 둘러보며) 그리고 저기, 관객석엔 수많은 옷들이 오셨군요.’에서 관객들을 ‘옷’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 연극에서 배우들이 맡은 배역처럼 ‘옷’으로 표현되는 각자의 사회적 역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④ ‘사람의 족보’를 ‘옷의 족보’로 보고, ‘아기 옷’, ‘할아버지 옷’, ‘아버지 옷’, ‘아들 옷’과 같이 인간의 역사를 ‘옷’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란 결국 ‘옷’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역할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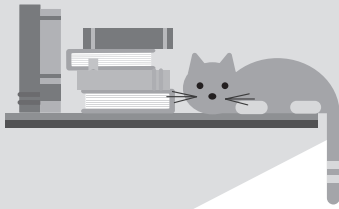
45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난한 집 만딸이 내 운명이죠.’, ‘큰아들 옷이 내 운명입니다.’, ‘둘째 아들 옷이 내 운명이구요.’라는 배우들의 대사에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정답과 해설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214~238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⑤	07 ②	08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①	14 ①	15 ④
16 ④	17 ③	18 ②	19 ③	20 ③
21 ⑤	22 ④	23 ④	24 ①	25 ④
26 ④	27 ③	28 ②	29 ⑤	30 ④
31 ④	32 ①	33 ③	34 ③	35 ④
36 ②	37 ④	38 ③	39 ①	40 ⑤
41 ⑤	42 ③	43 ③	44 ②	45 ①

[01~03] 화법

01 말하기 전략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에서 ‘직원 2’는 회의록을 살펴보고 B사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 중 자신의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되는 사안부터 협상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직원 3’과 ‘직원 1’은 이에 대해 동의하고 먼저 협상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에서는 B사가 단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자 공급 기한을 줄이는 방안,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상대측에 관한 사전 정보를 분석했지만 실제 협상에서 상대측의 주요 관심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② 상대측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내용은 [A], [B] 모두 다루고 있지 않다.
 ③ 상대측의 과오와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은 [A], [B] 모두 관련 없다.
 ⑤ 상대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중립적 견해는 [A], [B] 모두 관련 없다.

02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에서 ‘A사 직원’은 본인의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단가 인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기를 유도하는 발화로, 대화에 참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 ㉡은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 ㉡은 불분명한 의견에 관한 보완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 ㉡은 모두 상대방이 제안한 의견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 ㉡은 모두 상대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 상황이 아니므로 되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물음의 방식을 통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03 협상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의 빈칸에는 협상 가능 영역에 존재하는 협상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를 통해 B사가 제품을 개선하더라도 A사에 공급할 때 개선되기 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을 합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상안은 협상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사는 납품 기한을 6주에서 2주 줄인 4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 기한을 2주로 줄이는 것은 협상을 통해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안은 협상 가능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협상안이다.
 ② B사는 기술 지원 인력을 파견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기술 이전은 B사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협상 가능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협상안이다.
 ③ 제품 대금은 A사가 B사에 지급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제품의 납품 단가는 평균값으로 조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B사는 제품 단가 인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협상 가능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04~07] 화법+작문

04 의사소통 전략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 ‘학생 2’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예로 들며 전문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잡지에 실린 글’을 통해 ‘전문가’를 알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금 면담이 가능할까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힘들게 운전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와 같이 중심 화제인 자율 주행에 관한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율 주행이 이뤄지나요?’와 같이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 ③ ‘전문가’는 ‘아침에 친구와 만나서 인사할 때’와 같은 일상적 상황에 빗대어 자율 주행 과정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자율 주행의 과정을 자신이 이해한 말인 ‘정보 파악, 의사 결정, 실제 행동’으로 바꾸고, 적절한지 질문하고 있다.

05 대화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전문가’의 설명을 참고할 때, 도로망 중 최적화된 경로를 수집하는 것은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레이더나 라이다 등의 센서는 주행 중 사물에 관한 인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행 전에 레이더나 라이다 등의 센서를 통해 도로망 중 최적의 경로를 수집하는 것은 ‘전문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메모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문가’는 ‘학생 2’의 질문에 ‘주행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기계가 도로 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메모로 볼 수 있다.
- ③ ‘전문가’는 판단 과정에서 ‘판단 요소를 특정 신호로 처리하는 과정’이 이뤄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메모로 볼 수 있다.
- ④ ‘전문가’는 ‘정보를 종합해서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판단’을 판단 과정에서 진행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메모로 볼 수 있다.
- ⑤ ‘전문가’는 ‘물리적인 움직임인 가속, 정지, 방향 변경 등의 제어 과정’이라며 제어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메모로 볼 수 있다.

0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서 ‘전문가’는 자율 주行的 필요성과 관련된 견해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에도 자율 주행으로 인해 성장 가능한 산업 분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전문가’는 ‘주변에서 쉽게 자율 주행차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와 같이 자율 주행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 바를 밝혔다. (나)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 주차된 자율 주행 자동차를 보게 될 일도 멀지 않은 듯하다.’와 같이 자율 주행차가 보편화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전문가는 ‘현재 기술로는 인공 지능의 판단 과정에 대해 알 수 없거든요.’와 같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인공 지능의 판단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와 같이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전문가는 ‘자율 주행차가 사고를 났을 때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함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차량 개발자, 자율 주행 기술 개발자, 탑승자 중 법적인 책임 주체’와 같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전문가는 ‘기술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해 나간다면’과 같이 학생 세대에게 기대하는 점을 밝혔다. (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발전에 따라 나타날 문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와 같이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07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보기>의 사례는 운전 중 마주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B]에서는 자율 주행에서 모든 판단은 인공 지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행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자율 주행에서도 돌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의 판단 문제를 다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B]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율 주행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을 다루는 내용은 <보기>, (나)와 모두 관련 없는 내용이다.
- ③ (나)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의 도입 이전에 여러 보완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 주행 기술의 빠른 도입을 언

급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④ 차량 제어에 관한 최종 책임 문제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⑤ 자율 주행 기술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08~10] 작문

08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개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학기 초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동아리를 홍보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신입 부원 선발을 위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방식은 (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는 '동아리 구성 결과'를 밝히며 '친한 선후배끼리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친한 사람들로만 동아리가 이뤄진 경우에 대한 내용은 (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는 '학교 소식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은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학교'의 동아리 홍보 방식을 제시하며 해당 방식처럼 동아리 홍보 방식을 바꿔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09 작문 계획의 전략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의 글쓴이는 (가)의 주장에 관해 면접의 결과만 놓고 그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 면접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신입생들이 그 글을 읽고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배로서 오해를 바로잡고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을 통해 글을 쓰게 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학기 초 계획을 학기 말까지 그대로 실천하기보다 수정해 가며 운영해야 합니다.'와 같이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신문 동아리의 예시를 들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가)의 동아리 활동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고 2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드론, 로봇 축구 동아리'를 예로 들며 (가)의 내용을 바로잡고 있다.

10 글쓰기 전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에서는 동아리 홍보 방식이 여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결정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서를 접하고 동아리를 선택한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선배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ㄴ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아리 홍보물의 조회 수가 올해 입학생 수보다 적다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에 제시했던 주장을 보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존의 홍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나)의 내용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아리 대표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설문 조사는 (가), (나)의 내용과 모두 관련이 없다. 또한 (나)에서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홍보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대부분의 동아리 운영 계획서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불만이라는 면담 내용은 (가)의 글쓴이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계획서를 동아리별로 특색 있게 구상하자는 내용은 (나)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⑥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전교생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⑥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면담 내용은 (가)보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④에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동아리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동아리 활동의 질을 개선했던 사례는 ④에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만 동아리 홍보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나)와 관련이 없다.

[11~15] 문법

11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실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우유(牛乳)+빛’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에 해당한다. 또한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라 [우유뵤]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윤뵤]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12 문장 성분 분석,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의 명사절은 ‘에’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쓰였고, ㉢의 관형사절은 전체 문장의 관형어로 쓰였다.
- ㉣ ㉡의 명사절에는 관형어 ‘우리’가 있고, ㉢의 관형사절에는 관형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에는 명사절 ‘우리 아이가 놀기’가, ㉢에는 관형사절 ‘아이들이 방금 집에 도착했다는’이 안겨 있다.
- ㉣ ㉡의 명사절과 ㉢의 관형사절 모두에 생략된 성분은 없다.

13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현대어 풀이를 고려할 때 ㉡와 ㉣에는 명사형이, ㉠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에는 ‘쓰-’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뿌메(쓰-+-음+에)’가, ㉠에는 ‘얼-’에 명사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어름’이, ㉣에는 ‘닭-’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닭고몰(닭-+-음+을)’이 들어가야 한다.

[14~15] 대명사의 종류와 기능

해제 이 글에서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 예사말과 높임말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시 대명사의 경우 '이, 그, 저'의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주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대명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각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주제 대명사의 분류 체계와 각각의 기능적 특성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의 '저희'는 1인칭 대명사 예사말 '우리'의 낮춤말이고, ㉡의 '저희'는 '그들'을 다시 받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어디'는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모를 때 쓰이는 미지칭 대명사이고, ㉡의 '어디'는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을 때 쓰이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③ ㉠의 '이곳'과 ㉡의 '여기'는 '이' 계열의 장소 표시 지시 대명사로 화자에 가까운 쪽을 가리킨다.
- ④ ㉠의 '그분'은 3인칭 대명사 '그이'의 높임말이다. '저이' 역시 3인칭 대명사이다.
- ⑤ ㉠의 '당신'은 2인칭 대명사 '너'의 높임말이고, ㉡의 '당신'은 재귀칭 대명사 '자기'를 높여 이르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15 각 품사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인칭을 고려하여 '자네들'은 '저희들'이 아니라 1인칭 '우리들'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앞서 나온 '그 친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귀칭 대명사 '저' 또는 '자기'로 바꾸어야 한다.
- ② 앞서 나온 '할머니'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재귀칭 대명사 '당신'으로 바꾸어야 한다.
- ③ 화자 및 청자의 거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거기'로 바꾸어야 한다.
- ⑤ 인칭을 고려하여 '당신'을 1인칭 '내'로 바꾸어야 한다.

[16~20] 과학

'태풍의 발달 원인과 구조'

해제 이 글은 태풍의 발달 원인과 구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습한 공기가 단열 팽창하는 경우 적란운이 발생한다. 태풍은 이러한 적란운의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눈과 눈 벽, 나선 띠로 이루어져 있다. 온난 핵과 태풍 내에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 이러한 태풍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주제 태풍의 발달 원인과 구조

구성

- 1문단: 태풍의 구조와 단열 팽창
- 2문단: 불안정한 대기와 적란운의 발생
- 3문단: 대기 경계층에서의 공기 흐름
- 4문단: 대기 경계층 상층에서의 공기 흐름

16 글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4문단의 '대류권의 가장 위쪽 경계면인 대류 경계면에서는 공기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없으므로 공기는 태풍의 바깥 방향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방출된 바람은 태풍의 눈에서 멀어지면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휘는데'를 통해 북반구에서는 눈 벽을 따라 상승하던 공기가 대류 경계면에 이르면 태풍의 바깥 방향으로 방출된 후 시계 방향으로 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의 '상승한 공기의 온도가 주위 대기보다 높아져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를 통해 공기의 온도인 기온이 증가할수록 공기의 압력인 기압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외부와의 열 출입 없이 공기가 상승하여 팽창하는 것을 단열 팽창, 4문단에서, 하강하여 압축되는 것이 단열 압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온도가 하락하고, 단열 압축의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한다.
- ③ 1문단의 '태풍은 태풍의 눈, 눈 벽, 나선 띠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로 조직화된 적란운 집단이다.'와 2문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 대류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적란운이 발생한다.', 3문단의 '눈 벽이 형성되는 이유는 적도 부근 바다 위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태풍의 눈 부근에서 강력한 상승 기류에 의해 상승하면서 적란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대기 경계층에서는 이러한 세 힘이 <그림 1>과 같이 작용하여 북반구의 경우 반시계 방향(남반구는 시계 방향)의 적란운 소용돌이, 즉 나선 띠가 만들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3, 4문단을 통해, 태풍의 눈에서 청명한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대기 경계층에서는 원심력 때문에, 대기 경계층의 상층에서는 지표와의 마찰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태풍의 눈 벽을 이루며 상승할 뿐 태풍의 눈 내부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 글의 핵심 정보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습한 공기가 상승 기류에 의해 단열 팽창한 경우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수증기가 응결돼 적란운이 발생한다. 이는 습한 공기가 단열 팽창하는 경우 수증기가 응결될 때 발생하는 잠열로 인해 같은 고도의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작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습윤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보다 작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건조 단열 감률보다 습윤 단열 감률이 작은 이유는 습한 공기의 경우 수증기가 응결될 때 발생하는 잠열 때문에 건조한 공기에 비해 온도가 작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 ② 건조한 공기의 경우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같은 고도의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더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주위 공기에 비해 높은 기압이 형성된다. 따라서 상승한 공기가 다시 하락하게 되므로 대기가 안정하게 유지된다.
- ④ 단열 팽창에 의해 공기의 온도가 하락하는 것은 공기의 부피가 커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고도의 공기일수록 공기의 온도가 하락하는 것은 태양 광에 의해 데워진 지표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 ⑤ 단열 팽창 시 습한 공기의 온도가 건조한 공기보다 더 작게 하락하더라도 같은 고도의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낮다면, 주위 공기보다 기압이 높아 다시 하강하게 되고 대기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18 추가 정보를 통한 글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태풍의 눈 부근의 지표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태풍의 눈 방향으로 공기가 더 이동하지 못하므로 공기의 흡입 속도가 감소하나, 태풍의 눈에 근접할수록 공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여 공기의 이동 속도는 증가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태풍의 눈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흡입 속도가 감소하므로 바깥쪽 공기의 흡입 속도가 안쪽 공기의 흡입 속도보다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정체된 공기가 상승 기류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상승 기류는 태풍의 눈에 가까워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 ③ A는 공기의 흡입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며 A의 바깥쪽에서는 A에 가까워질수록 흡입 속도가 증가하고, A의 안쪽에서는 A에서 멀어질수록 흡입 속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A 바깥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A 안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성된다.
- ④ 태풍의 눈 부근에서의 강한 원심력과 이로 인해 공기의 흡입 속도가 줄어들어 발생한 강력한 상승 기류 때문에 공기가 상

승하게 되고, 이때 방출된 잠열이 태풍의 눈 내부의 기온을 상승시켜 온난 핵이 발생한다.

- ⑤ A를 경계로 공기의 흡입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바깥쪽 공기의 흡입 속도가 안쪽 공기의 흡입 속도보다 커지게 되어 공기가 정체되게 되고, 이것이 상승 기류를 발생시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태풍의 눈 벽이 발생한다.

19 글의 핵심 정보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대기 경계층은 지상으로부터 약 1km 이내의 영역으로, 지표와의 마찰력이 공기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따라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즉 지표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표와의 마찰력은 작아지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압 경도력은 기압 차에 비례해 공기를 이동시키는 힘으로 기압 차가 클수록 기압 경도력이 더 커지게 된다.
- ② 코리올리 힘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표에서의 운동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힘으로,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④ 고도 1km 이상의 대기 경계층의 상층에서는 기압 경도력, 코리올리 힘,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 등압선에 수평인 바람이 발생한다.
- ⑤ 북반구의 대기 경계층에서는 기압 경도력, 코리올리 힘, 지표와의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어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태풍의 눈 방향으로 흡입된다. 이렇게 빨려든 공기가 태풍의 눈 부근에 가까워지면 작은 반경을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커진다.

20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응결’의 사전적 의미는 ‘포화 증기의 온도 저하 또는 압축에 의하여 증기의 일부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액체 따위가 엉겨서 뭉쳐 딱딱하게 굳어짐.’은 ‘응고’의 사전적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팽창’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다.
- ② ‘방출’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다.
- ④ ‘지표’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다.
- ⑤ ‘고도’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다.

[21~25] 융합

‘담합의 불안정성과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해제 이 글은 담합의 발생 원인과 불안정성에 대한 경제적 원리를 바탕으로 담합의 형성 및 유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 원리와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과점 기업은 담합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유인과 담합에서 이탈함으로써 이윤을 더욱 증가시킬 유인을 동시에 갖는다.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은 담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담합 형성을 방지하거나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제 담합의 불안정성과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구성

- 1문단: 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
- 2문단: 비협조적 과점 시장에서의 균형
- 3문단: 담합의 유인과 담합의 불안정성
- 4문단: 담합 기간에 따른 담합 형성 가능성의 변화
- 5문단: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 목적
- 6문단: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 7문단: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
- 8문단: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21 논지 전개 방식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은 담합에 대한 경제적 유인 구조와 이에 따른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을 통해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 원리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특정 법 규범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설을 검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특정 경제 이론의 한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특정 사회 현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22 글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담합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더욱 은밀해져 적발될 확률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담합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이윤이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예상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 ② 보수행렬이란 각 기업이 특정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얻게 될 이윤을 나타낸 표로, 보수행렬을 통해 각 기업이 선택한 전략의 조합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을 알 수 있다.
 ③ 각 기업은 담합을 통해 담합 이전에 비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과점 시장에서는 담합의 유인이 존재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기업 A와 B가 ‘높은 가격’을 선택하기로 담합한 경우 각 기업은 담합 이전의 이윤인 50보다 30이 많은 80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⑤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형성 이전에는 담합이 형성될 확률을 낮추고, 형성 이후에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여 담합을 와해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3 추가 정보를 통한 글의 핵심 정보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낮은 가격’ 전략이 두 기업 모두의 우월 전략이며, 따라서 두 기업이 모두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 균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업 A와 B 모두 ‘낮은 가격’ 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으므로 ①은 내시 균형이다.
 ② ①이 균형인 이유는 ‘낮은 가격’ 전략이 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우월 전략이고 기업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우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는데, ①이 이러한 균형이기 때문이다.
 ③ 추측 변이가 0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상대의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적 전략이 내시 전략이므로, 이에 따라 내시 균형인 ①이 성립한다.
 ⑤ 기업 A와 B가 모두 50씩의 이윤밖에 얻지 못하는 것은 ‘낮은 가격’ 전략이 모든 기업의 우월 전략이며 이러한 우월 전략의 존재로 인해 우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24 글에 제시된 상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에서 기업 A는 담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면 기업 B만 약속을 지킨다면, <표>를 통해 B는 담합을 약속하기 전의 이윤인 50보다 20이 적은 30의 이윤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의 이윤은 담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기 동안 20이 감소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 두 기업이 담합을 지키는 경우 두 기업 모두 80의 이윤을 얻어 담합 전의 이윤인 50에 비해 3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 ③ ㉠에서 기업 A가 처음부터 담합의 약속을 어긴다면 1기 동안 140의 이윤을 얻어 담합할 때의 이윤인 80에 비해 6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A의 기만행위를 B가 인지하면 2기부터 n기까지 매 기 50의 이윤밖에 얻지 못하므로 담합 시 얻을 수 있는 이윤인 80, 즉 매 기 30의 추가 이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④ ㉠에서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A와 B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진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담합이 n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⑤ ㉠에서 담합 약속 기간인 n이 충분히 크다면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담합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더 높은 추가 이윤을 줄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5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제도 개정으로 1순위 자진 신고자와 1순위 조사 협조자의 과징금 감면 혜택이 각각 75~100%, 50~100%에서 모두 100%로 동일해졌다. 하지만 개정 전에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100%로 동일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C국 정부가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데 성공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았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인 높은 담합 적발 확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② 제도 개정으로 인해 감면 혜택이 100%로 일원화됨으로써 개정 전에 비해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명확해졌으며 이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의 세 번째 조건인 자진 신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명확성을 높인다. 이러한 명확성의 증가로 인해 제도 개정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제도 개정 전에는 과징금 혜택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75~100%로 결정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자진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작았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의 두 번째 조건인 강력한 처벌의 존재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제도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출의 미래



EBS 수능 기출을 제대로 풀면
수능을 보는 눈이 열린다.

[26~30] 인문

‘사회와 봉당 정치’

해제 일제 식민 사학자들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사람의 정치 세력화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전개해 간 글이다. 훈구와의 투쟁 과정, 선조 이후의 봉당의 발생과 분열, 봉당 정치의 종식 과정을 각 시기마다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예로 들며 봉당 정치의 정치·사회학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주제 사람의 정치적 개혁 전개 과정과 봉당 정치의 의의
구성

- 1문단: 일제 식민 사학의 의도와 그 극복을 위한 과제
- 2문단: 사람의 중앙 정계 진출 배경
- 3문단: 공론 정치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
- 4문단: 무오사화의 원인과 결과
- 5문단: 사람의 재등장과 기묘사화
- 6문단: 새로운 정치 운영 체제인 봉당 정치의 성립
- 7문단: 봉당 정치의 전개 및 소멸 과정
- 8문단: 사회와 봉당 정치의 의의

26 세부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6문단의 ‘그 이후 정치가 ~ 운영 체제로 정착되었다.’ 부분에서 봉당 정치는 사람이 공론 정치의 한계를 느끼게 된 후 나타난 정치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의 ‘15세기 후반부터 ~ 그들의 비리였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3문단의 ‘따라서 그들은 ~ 견제할 수 있었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③ 3문단의 ‘결국 사람의 ~ 과정과 연관된 것이었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⑤ 1문단의 ‘20세기 초 ~ 기인한 것이었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7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6문단에서 봉당 정치의 목적이 공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정치 운영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7문단에서 세도 정권은 당쟁이 종식된 후 순조 때부터 들어섰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위반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의 ‘그 이후 정치가 ~ 운영 체제로 정착되었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1문단의 ‘20세기 초 ~ 근거로 규정했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3문단의 ‘따라서 그들은 ~ 견제할 수 있었다.’ 부분, 5문단의 ‘사람은 ~ 지위를 강화했다.’ 부분과 <보기>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⑤ 7문단의 ‘지나친 정치적 ~ 중요한 것이었다.’ 부분과 <보기>의 ‘봉당 정치는 ~ 특수한 성격이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8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7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각 봉당은 성리학적 원칙 안에서 도덕적·학문적 정통성을 근거로 정치적인 조화와 견제를 꾀한 것이지, 선지에서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정당화를 위해 성리학적 노력을 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왕권의 약화를 가져온 이유라고도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8문단의 ‘봉당 정치는 ~ 지나는 것이었다.’ 부분과 <보기>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③ 7문단의 ‘각 봉당은 ~ 대의명분은 중요한 것이었다.’ 부분과 <보기>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7문단의 ‘이념 논쟁에서 ~ 중요한 것이었다.’ 부분과 <보기>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⑤ 7문단의 ‘지나친 정치적 ~ 중요한 것이었다.’ 부분과 <보기>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9 관련 자료의 해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서는 국왕과 소수 신하들에게 정치의 책임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인재 등용 방식의 폐쇄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소수 계급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중한 것을 악정이라고 비판했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가) ‘자기 한 개인 ~ 악정이었던 것입니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보기>의 (가)에서는 봉당 정치가 폐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가)의 견해로는 식민 사학자들의 논리를 극복

할 수 없다.

- ③ <보기>의 (나) ‘셋째, 정당으로 ~ 진행한 것이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보기>의 (나) ‘첫째, 당파로 ~ 생긴 것이다.’ 부분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0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장악’의 사전적 의미는 ‘손안에 잡아 쥐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이며, 선지에서 ㉠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파악’이다.

[31~33] 고전 시가

이이, 「고산구곡가」

해제 이 작품은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고산 석담에 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송나라 주자의 「무이도가」를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를 중시하여 각 연마다 풍경을 담아 노래하였다.

주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

구성

- 제1수: 주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의
- 제2수: 관암에서 술을 마시며 일출을 즐김.
- 제3수: 화암의 늦봄 경치와 계곡의 절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 제6수: 수변 정사에서 강학과 영월 음풍
- 제7수: 조합의 야경
- 제10수: 문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경박함

3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제2수>부터 <제10수>까지의 초장에서 ‘어드미고’라고 물은 뒤 화자가 감상하는 공간을 언급하며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고기’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고기’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이 지닌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추상적 소재를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에서 화자가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일출을 감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만나 즐거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 화자는 꽃을 띄워 속세로 보내고 싶다고 하며, 고산구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곳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다.
- ③ ㉢에서 화자는 물가에 지어진 정사를 둘러보며 그곳에서 느

껴지는 맑은 기운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④ ㉔에서 화자는 ‘고기’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㉔에서 직접 와 보지도 않고 구곡에 대해 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유인’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제7수>의 ‘황혼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를 흐노라’는 낚시를 즐기다 황혼에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경치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연 경치를 미화하는 예찬적 태도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수>의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흐리라’에서 <보기>의 ‘주자의 「무이도가」를 본떠 창작한 작품’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제6수>의 ‘강학도 홀연이와 영월 음풍 흐올이라’에서 ‘강학’은 학문을 닦는 것, ‘영월 음풍’은 경치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보기>에서 이 작품은 초장에 화자가 경치를 즐기는 공간을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수>에서 <제10수>까지의 초장에 제시된 ‘관암’, ‘화암’, ‘은병’, ‘조협’, ‘문산’은 화자가 고산에서 경치를 즐기는 공간에 해당한다.
- ⑤ <제3수>의 ‘곳출’, <제10수>의 ‘눈’과 같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한 것에서 계절적 특징과 관련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4~37]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이대봉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군담 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서 남성 주인공인 이대봉보다 그의 정혼자인 장애황의 활약상이 더욱 두드러진 작품이다. 장애황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진출하였고, 외적이 난을 일으켰을 때 대원수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여성 독자의 반발 심리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전개가 어려서 한 남녀의 혼인 약속과 헤어짐, 시련 뒤의 재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일생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 이 시랑은 백운암에 시주하고 아들 대봉을 낳는다. 이 시랑의 죽마고우인 장 한림도 같은 시간에 딸 애황을 낳아 대봉과 정혼을 시킨다. 간신 왕희가 국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이 시랑은 직간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왕희의 참소를 입어 백설도로 유배된다. 유배를 가던 중 왕희는 뱃사공을 매수하여 이 시랑과 대봉을 죽이려고 하지만 대봉 부자는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대봉 부자의 참변을 듣고 장 한림과 그의 부인은 탄식하다 병을 얻어 죽는다. 왕희는 애황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나, 애황은 남장을 하고 도주하여 이름을 계운으로 바꾸고 무예를 배운다.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계운은 남선수가 중원을 침략하자 대원수로 출마해서 적을 크게 무찌른다. 한편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대봉은 백운암에서 수련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마침 북홍노가 중원을 침범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천자를 핍박하여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이대봉은 필마단기로 홍노군을 격파하고 적군의 항복을 받아 낸다. 결국 이대봉은 왕희를 처단하고 장애황과 혼인한다. 이후 이대봉은 초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일생을 마친다.

34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소송의 팔자가 기구하와 일찍 가군과 아자를 생이별하옵고, 또 흥노의 난에 모진 목숨을 살고자 하옵은 혹자 가군과 자식을 만나 볼까 하와 삭발하여 불명암에 있삽더니’라는 내용을 통해 이 시랑 부인이 남편과 아들을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승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랑 부인이 유배지로 가는 도중 수증원혼이 된 남편과 아들의 댁을 달래기 위해 승려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도 또한 난을 피하여 고향을 버리고 천 리 타향에 와 너를

보니'라는 이 시랑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부인이 만일 갈 곳이 없습거든 소승을 따라 절로 가오면 자연히 안신이 되오리이다.'라는 노승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소인의 모해를 입어 적소에 간 지 팔 년이로되 소식을 모르오니', '아자의 이름은 대봉이요, 그 부친과 한데 적소로 갔사오니'라는 이 시랑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오늘날 우연히 이곳을 지나옵다가 원수의 치제하심을 보옵고 자연 비회 동하와 가군과 자식을 생각하오매 또한 수중원혼이 된 듯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통곡하여'라는 이 시랑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5 세부적인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는 부인을 도와준 봉명암의 여승이 아니라, 이대봉의 모친인 '부인'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비는 장미동 장 소저의 시비 난향이옵더니'라는 난향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아자의 이름은 대봉이요, 그 부친과 한데 적소로 갔사오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라는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원수'를 '소저'라고 지칭하는 것을 통해 그가 장 소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첩은 장미동 장 한림의 여식 애황이로소이다.'라는 소저의 말에서 그가 장 한림의 여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군은 일찍 벼슬에 올라 이부 시랑을 하였사오며', '아자의 이름은 대봉이요'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인물의 의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그 여승의 신세도 나와 같은지라. 그 소회를 묻고자 하나니 그대는 빨리 나아가 그 여승을 불러오라.'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㉔는 상대방의 사연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㉕는 이부 시랑과 이대봉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랑 부인이 '속인 때 거주는 기주 땅이오며', '가군과 자식을 생각하오매 또한 수중원혼이 된 듯하여'라고 말하자 원수는 '정신이 아득하고 슬픔이 간절하여 목이 메어' 말을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기주의 동명, 가군과 아자의 성명, 수중고혼이 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문게 된다. 또한 부인의 말을 듣고 원수가 '이 시랑 부인임이 정녕 의심할 바가 없는지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㉔는 부인이 이부 시랑이나 이대봉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상대의 사연을 묻는 질문으로,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는 지를 떠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㉕는 상대를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㉔는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상대에게 불신을 갖고 하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㉔, ㉕ 모두 상대의 정체를 알고 이를 모른 척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인물의 성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원수는 백만 군중의 원용 상장이시고, 소승 등은 심산궁곡의 일개 빈승이오니'라는 내용은 수많은 병사들의 우두머리인 애황과 깊은 산골의 가난한 승려인 부인과 난향의 처지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애황의 활약상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의 소저는 왕희의 아들 석연의 욕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하더니'라는 말은 애황이 왕희의 아들 석연의 욕을 피하기 위해 어딘가로 나갔다는 의미로 간신 왕희의 아들로 인한 애황의 고난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거년에 소저가 남복을 개작하고 잠깐 다녀가시더니 그 후에 다시 소식이 묘연하여이다.'라는 말은 작년에 애황이 남장을 하고 잠깐 다녀간 뒤로 소식을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애황이 집을 나간 뒤 남장을 하고 다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그대는 내 영대로 할 것이어늘 어찌 내 영을 거역하나뇨?'라고 한통에게 호령을 하는 모습을 통해 장애황이 대원수로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이 시랑 부인과 애황이 수륙재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애황이 이 시랑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시랑 부인임을 확인하고 '소첩은 장미동 장 한림의 여식 애황이로소이다.'라고 자신을 이름을 밝히는 과정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원일, 「노을」

해제 이 작품은 '나'가 소년 시절에 체험한, 소도시 경남 진영에서 일어났던 남로당 폭동의 상처를 20여 년이 지나 중년이 되어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남로당 폭동을 다루면서도 이를 역사적·이념적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고 극적 화해를 이루는 과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비극적인 현대사에서 고통스러운 자기 극복의 의지

전체 줄거리

출판사 편집국장인 '나'는 숙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백정인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매일 밤을 지새울 뿐만 아니라 난폭하기 짝이 없어 아버지를 참다못한 어머니는 일찍이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 정부 수립 직후 좌익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폭동의 앞잡이가 되어 사람 잡는 백정이 되고 폭동이 진압되자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나'는 좌익 폭동에 연루된 아버지로 인해 갖은 고생을 한다. 숙부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마음속에서 지워 버리고 싶었던 고향의 기억이 점점 되살아남을 느낀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소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고향 산천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동안 미워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된다.

38 세부적인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A]의 '자두연기한 시상 만내가꼬 그 사람들도 붉은 물 들어 휩쓸린 것이사 우짤 수 읍지마는 우째 그 천성까지 나무래겠노.'에서 아버지가 좌익 폭동의 주동자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을 '자두연기한 시상', 즉 당시 시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의 '죽은 조상이 산 사람 밥 떠먹이 주겠어예? 아무리 아버지라 카지만 내사 그 양반마 생각하모 웬지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서.....'에서 무덤도 남기지 않고 죽은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외면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제.'라는 말로 볼 때, '아버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심 부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A]에서 '부친 이바구가 나오모 남 앞에 얼굴 들 낮이 읍겠지마는'이라는 내용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B]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울분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A]에서는 '아버지'의 가치관에 공감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 [B]의 '아무리 아버지라 카지만 내사 그 양반마 생각하모 웬지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서.....'에서 '아버지'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버지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
- ⑤ [A]에서 '아버지'의 천성까지 나무랄 수 없다는 말에서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도 있으나, [B]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39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치모 부친 이중달 씨나 아버지가 ~ 찌푸린 하늘처럼 금세 내 마음이 무거워 온다. 그 화제를 꺼낸 치모 심사가 못마땅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나'는 아버지가 연루된 과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그는 남들이 폭동이라 말해도 '봉기'로 고집하며, 호기심으로 눈이 빛난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그때 그 주동자들을 그런 방법으로 재빨리 손을 써 축결해 뿌렸으이 불이 꺼진 기지 안 그랬다 카모 진영 바닥이 또 쑥 대밭이 되어 뿌렸을 꺾더.'라는 종철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그대로 참고 있다간 자기 입장이 이상한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었던지 갑득이가 종철이 말을 거들고 나선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러나 고향을 떠나 산 스물아홉 해 동안 나는 하루도 고향을 잊어 본 적이 없었다. 치모의 말처럼 고향을 잊으려고 노력해 온 만큼 이곳은 나로 하여금 더욱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는 노을진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 현구의 눈에 비친 고향의 모습이 '어둠을 기다리는 그런 상처 깊은 고향'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다시 오고 싶은 고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가 아버지에게 대한 상처를 씻고 아버지와 화해한 이후의 고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아버지에 대한 핏빛 기억으로 인해 아버지를 노을과 동일시한다. 그런데 ‘노을은 단순히 붉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복합적임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아버지를 단순히 미워하기만 했던 ‘나’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② ‘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가지로 뭉뚱그려 구별 지어 버리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오로지 이데올로기에 물든 좌익 폭동의 주동자로만 기억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소의 피’, ‘피멍’, ‘피범벅’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나’는 아버지를 노을을 닮았다고 생각하며 미워한다. 따라서 ‘어둠을 맞는 핏빛 노을’은 백정인 아버지로 인한 어릴 적 고통, 상처의 기억과 관련된 색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찬란한 무지갯빛’ 노을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노을이라고 할 수 있다.

[41~45] 현대시+현대 수필

(가) 박두진, 「설악부」

해제 이 시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 말기의 상황에서 쓰인 작품으로 민족적 수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한겨울 눈으로 덮인 산의 모습에서 태고의 신비를 느끼며 산에 영원한 모성을 부여한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민족의 항구적인 봄날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수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태양을 맞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시인의 마음이 깊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자연에서 느끼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

구성

- 1연: 흠날리는 백설에 덮인 설악산
- 2연: 고요함과 외로움을 간직한 설악산
- 3연: 설악산에 묻히고 싶은 소망
- 4~5연: 설악산에서 부활하고 싶은 소망
- 6~7연: 영원히 지속되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소망
- 8연: 화합의 세계에 대한 소망

(나) 이건청, 「하류」

해제 이 시는 나무를 중심으로 유년 시절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기 나무가 있었네.’라는 시행은 ‘하류’를 가리키는 공간성과 ‘유년 시절’을 가리키는 시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화자는 동경의 대상이자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을 주던 나무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세월이 흐르면서 동치마저 타 버려 재가 되고 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순수했던 세계가 사라져 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9행: 유년 시절 추억 속의 나무
- 10~21행: 유년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무
- 22~28행: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나무

(다) 이양하, 「나무의 위의」

해제 ‘나무’라는 평범한 소재를 통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밝힌 수필이다. 글쓴이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해석하고 있다. 마로니에 나무, 성균관의 은행나무 등의 모습에서 삶의 미덕을 발견하고는 이를 예찬하고 있다. 아울러 글쓴이는 나무에게는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나무의 위의

구성

- 가: 나무의 계절
- 승: 나무가 주는 기쁨과 위안(수목 부분)

- 전: 내가 가까이하는 나무들(수록 부분)
- 결: 나무의 위의(수록 부분)

4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서 ‘산’ 또는 ‘설악’은 영원한 모성이 부여된 대상으로 화자는 새로운 태양을 맞는 이상적 세계에서 모두가 화합하는 삶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 ‘나무’는 유년 세계를 상징하는 소재로 화자는 꿈과 희망이 존재하는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다)에서 ‘나무’는 위와 덕성을 지닌 존재로 글쓴이는 나무를 벗 삼아 지내는 삶을 동경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한겨울을 배경으로 눈으로 덮인 설악산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또한 봄이 오는 때 ‘푸른 무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매미 소리’, ‘늦기러기’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며, 나무가 재가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유한성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의 유한성이 계절의 변화에서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대상의 유한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② (가)의 경우 미래에 해당하는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볼 날’에 대한 소망은 드러나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화자가 과거 유년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고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다)의 경우 ‘나무’와 더불어 ‘나무’의 미덕을 따르는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가)에서 화자는 ‘이 땅 위’에는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고 말하며 ‘꽃동산’이 되는 날을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대비되는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순수한 세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에서 글쓴이는 나무와 다른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면서 나무의 미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것일 뿐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가)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화자의 소망 또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그에 비해 (나)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직접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나무를 예찬하며 나무와 더불어 사는 삶을 소망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다)와 달리, (나)에서는 희망적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4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에서 ‘태고!’, ‘달밤엔 두견!’은 영탄적 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음성 상징어를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왜 이렇게 자꾸 ~ 찾아 나서는 겐가?’는 의문문에 해당하며, ‘외롭게 물어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두견도 와 울어라.’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화자의 염원과 소망이 부각되고 있다. (나)에서는 의문문과 명령문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나)에서는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이 ‘거기 나무가 있었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유년 시절에 대한 동경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④ (가)의 ‘하얀 눈바람’,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등에서 색채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설악’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은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나무’가 있던 ‘하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와 울어라’, ‘다른 태양’,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꽃동산’, ‘그립다’ 등의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거기 나무가 있었네.’, ‘버렸지만’ 등의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화자는 ‘꽃이 피는 때’가 오면 자신의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이 피고’, ‘하얀 산나비가 날’아 다닐 것이며,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마침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화자가 호명 및 명령을 하고 있는 대상인 ‘한 마리

맺새'와 '두견'은 화자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고요한 '설악'에 있는 자신을 '태고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내 영원한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산'이 태고의 신비가 있는 공간, 영원한 모성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 ② 화자는 죽으면 '산'의 '양지쪽'에 묻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의 융합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④ 화자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영원한 세계인 자연과 같이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는 것을 반복하며 '떨하지 않'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항구적 미래에 대한 염원과 열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설악까지 원통 꽃동산'이 되는 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꽃동산'은 자연과 현실이 합일된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꽃동산'은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에서 화자는 '하류'에 있던 과거의 '나무'를 떠올리고 있다. 이때 '나무'는 순수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살아갔던 유년 시절을 상징한다. 따라서 ㉠은 순수했던 과거의 삶을 추억하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에서 글쓴이는 욕심과 잡념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룩한 모습을 지닌 '나무'를 보며, '하찮은 명리가 가슴을 죄고, 세상 휘예포편에 마음 흔들리는 우리 사람'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은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 그들을 만들어 주었'던 나무가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렸'고 '둥치마저 타 버려 재가 돼 버'린 모습에서 화자가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의 글쓴이는 '나무'를 통해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이 순수했던 유년 시절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둥치마저 타 버려 재가 돼 버'린 것은 순수한 세계가 사라져 버린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점잖고 너그럽고 거룩한 모습을 지닌 ㉡을 보며 글쓴이는 명리를 추구하며 휘예포편에 마음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비소하고 보잘것없'음을 깨

닫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 역시 글쓴이가 일상에서 체험한 구체적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화자는 ㉠을 통해 순수했던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은 개인적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은 글쓴이의 삶을 성찰하게 해 주는 동시에 글쓴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역사적 소명감과 관련이 없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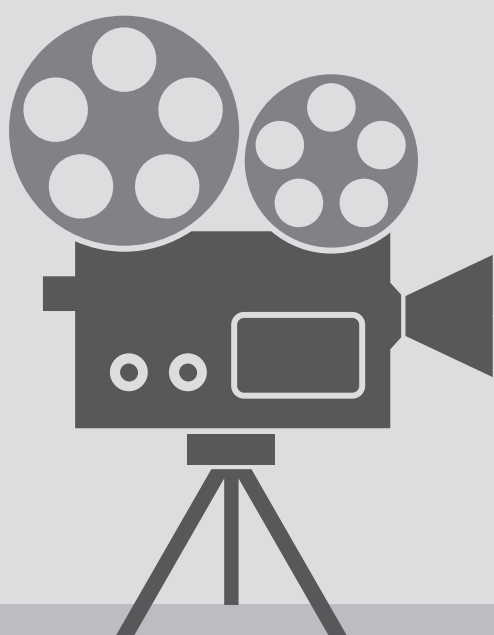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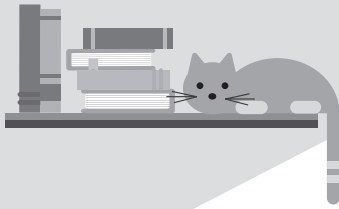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다)의 글쓴이는 '동리에서 볼 수 있는', '초록 일색의 나무'는 '은근하고 호뭇하고 건전한 풍취'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아롱다롱 울긋불긋 곱고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꽃은 '사람의 눈을 끌고 마음을 빼내는 데가 있'어 '얹고 얹고 야한 데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눈을 끌고 마음을 빼내는' 풍취는 꽃의 특성에 해당하며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글쓴이는 '마로니에'를 보면서 '피와 살과 냄새로 된 사람의 어지러운 꿈'이 아닌 '평화와 정일과 기쁨이 깃'든 꿈을 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잎새가 '총총히 뻗'어 있는 데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햇빛도 뚫지 못하고 바람도 흔들지 못할 만큼 '깊고 짙고 고요한 그늘'을 지닌 '마로니에'의 모습을 보고 글쓴이가 사유한 것이다.
- ③ 글쓴이는 '하도 늙어 몇 아름 되는 줄기 한 구석에도 동혈이 생'긴 은행나무를 보며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세월이 지나도 '원기는 여전히 왕성'하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품'을 지닌 '은행나무'의 의연한 모습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점잖고 너그럽고 거룩'한 나무와 달리 인간을 '비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하찮은 명리와 휘예포편에 신경 쓰는 세속적인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글쓴이는 '나무'를 '친구'라고 지칭하며 '나무를 벗 삼아 지내는 삶', 곧 나무가 지닌 덕성을 따르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나무'에 대해 친밀감과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정답과 해설

실전 모의고사
5회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①	09 ④	10 ④
11 ⑤	12 ⑤	13 ③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⑤	20 ④
21 ⑤	22 ②	23 ②	24 ②	25 ⑤
26 ③	27 ③	28 ⑤	29 ⑤	30 ④
31 ②	32 ①	33 ③	34 ②	35 ②
36 ②	37 ①	38 ③	39 ④	40 ⑤
41 ②	42 ②	43 ④	44 ⑤	45 ②

[01~03] 화법

01 말하기 전략에 대한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강연자가 강연의 중간중간에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연의 앞부분에서 청중들에게 징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냐고 질문한 후 대답을 들으며 상호 작용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③ 강연의 중간중간 ‘담금질’, ‘울음질’, ‘대정어’, ‘맥놀이 현상’, ‘배음’과 같이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용어의 뜻을 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의 주제와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연 후 직접 징을 치면서 징 소리의 특징들을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이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02 듣기 활동에 대한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학생이 떠올린 생각 중 강연의 내용과 상충되는 자신의 평소 생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팽과리의 제작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느낀 것은 강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을 떠올리며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예전에 징 소리를 듣고 황소 울음소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을 떠올린 것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의 내용에 동감하며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성덕 대왕 신종의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떠올린 것은 강연 내용(징의 맥놀이 현상)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떠올리며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징 소리에는 음높이가 있으니 징으로 가락을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내용은 강연의 내용을 근거로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자료 활용 계획의 적절성 판단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서 자료를 제시하기 전 강연자는 맥놀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번 들어 보실까요?’와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전통 악기의 사진을 시각 자료로 ㉠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뒤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징과 유사한 형태의 악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과 같은 발언이 있으므로 ㉡에 징과 유사한 악기가 나타나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의 뒤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과 같은 강연자의 발언이 있고, ‘담금질’과 ‘울음질’에 대한 설명이 있다. 따라서 ㉢에 장인이 징을 담금질하는 영상과 울음질하는 영상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의 뒤에는 ‘그런데 이 음높이가 보이시지요?’와 같은 강연자의 발언이 있고, 징이 만들어 내는 배음 구조의 음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 따라서 ㉣에 징 소리의 음높이를 표시한 표를 시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의 뒤에는 ‘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와 같은 강연자의 발언이 있고, ㉤의 앞에는 징 소리에 대한 설명이 있다. 따라서 ㉤에 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실제 징 소리를 청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04~07] 화법+작문

04 의사소통의 양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에는 특별히 화제에서 벗어난 의견이 있지 않을뿐더러, 회의의 규칙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앞부분에서 이번 주 동아리 시간에는 행사를 홍보하는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에 대해 합의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학생 2의 두 번째 발언과 다섯 번째 발언, 그리고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글의 구성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과 다섯 번째 발언을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중간중간 정리해 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과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언을 보면 글의 내용에 맞게 미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말하기 방식에 대한 분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에서 상대의 의견이 지니는 의의를 언급한 부분은 없으며, 질문 또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쓰레기 없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언급에 해당하고, ‘그러한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자는 것이 의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에서 ‘쓰레기들로 우리 환경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먼저 알리는 게 어떨까?’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에서는 ‘좋은 생각이야.’와 같이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 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쓰레기 없는 일주일’ 행사를 홍보할 방안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에서는 ‘난 그 의견에는 반대야.’와 같이 상품을 제공하지는 앞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6 글의 내용 확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 한 가지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양산해 내는 쓰레기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국민 1명이 1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양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미국과 유럽, 국제적 대기업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쓰레기 없는 삶’이라는 환경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그 운동의 개념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나)의 네 번째 문단에서 동아리 부원이 행사에 참여한 경험과 참여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7 조건에 맞게 글쓰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A]를 보면 글의 제목에는 행사의 의의와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구를 활용해야 한다. ‘쓰레기는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에는 대구가 활용되었고, 행사의 의의도 드러나 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실천을 함께해요!”에는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글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구를 활용하였고, 행사의 의의가 드러나 있으나 행사 참여에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대구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대구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대구를 활용하지 않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10] 작문

08 글쓰기 계획 확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학생의 초고에는 <세한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학생의 초고에서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글쓴이의 경험과 연계한 부분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학생의 초고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세한도>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학생의 초고에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는 감상 중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드러나 있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앞으로의 감상 계획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학생의 초고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조사한 정보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9 글의 내용 확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학생의 초고에는 <세한도> 이외에 김정희가 남긴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㉔은 글에 반영된 내용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두 번째 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② ㉒은 마지막 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③ ㉓은 두 번째 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⑤ ㉕은 세 번째 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의 '그리고'를 '그러나'로 고치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마도'라는 부사어가 앞에 사용되었으므로, ㉑은 '것일 터이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㉒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를 쓰는 것이 옳다.
 ③ ㉓에는 '지키고 있는'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자신을'과 같은 목적어를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㉕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앞부분과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문단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소독약[소동낙]'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짓기다[진니기다]'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며, '영업용[영엄농]'은 어근에 한자어 계열 접미사 '-용(用)'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세 단어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꽃잎[꼇닙]', '낮익다[낫닉따]', '눈요기[눈뇨기]'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세 단어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② '맨입[맨닙]', '신여성[신녀성]'은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며, '식용유[시공뉴]'는 어근에 한자어 계열 접미사 '-유(油)'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세 단어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③ '색연필[생년필]'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헛일[헌닐]'은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두 단어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그런데 '날날이[난:나치]'는 어근과 고유어 계열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기 때문에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한여름[한녀름]'은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숨이불[숨:니불]'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두 단어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그런데 '붙이다[부치다]'는 어근과 고유어 계열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기 때문에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굶주리다'는 '굶-'과 '주리-'가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굶-'과 '주리-'가 어근이다. 또한, '굶주리고, 굶주리며, 굶주리니' 등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굶주리-'가 어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익히다'는 '익-'과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이기 때문에 '익-'이 어근이다. 또한, '익히고, 익히며, 익히니' 등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익히-'가 어간이다.
 ② '들볶다'는 '볶-'에 접두사 '들-'이 결합한 파생어이기 때문에 '볶-'이 어근이다. 또한, '들볶고, 들볶아서, 들볶으니' 등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들볶-'이 어간이다.
 ③ '타고나다'는 '타-'와 '나-'가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타-'와 '나-'가 어근이다. 또한, '타고나고, 타고나서, 타고나니' 등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타고나-'가 어간이다.

- ④ ‘보살피다’는 ‘보-’와 ‘살피-’가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보-’와 ‘살피-’가 어근이다. 또한, ‘보살피고, 보살피며, 보살피니’ 등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보살피-’가 어간이다.

13 시간 표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해당 문장은 아침까지는 바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았-’이 ㉠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해당 문장은 지금은 부산에 살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았었-’이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② 해당 문장은 내일 시험을 망칠 것임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었-’이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④ 해당 문장은 청년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었-’이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⑤ 해당 문장은 오다가 본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먹다’라는 동작이 완료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었더-’가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4~15]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성

해제 이 글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동사와 타동사가 형성되는 양상에 대해 다루면서 일부 자동사와 타동사들은 부사어 등의 특정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하나의 동사가 특별한 형태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이른바 자타 양용 동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 및 사용상 특성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ㄱ의 ‘불리다’는 사동 파생 접미사 ‘-리-’가 결합한 사동사로, 자동사 ‘붙다’에 사동 파생 접미사가 붙어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ㄴ의 ‘참석하다’는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자동사로, 【…에】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ㄷ의 ‘남기다’는 사동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로, 자동사에 사동 파생 접미사가 붙어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④ ㄹ의 ‘두다’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치는 타동사로, 목적어뿐 아니라 【…에】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⑤ ㄴ의 ‘움직이다’는 자동사로 쓰였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형태의 변화 없이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15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아래의 예문에서는 ‘쉴다’가 타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는 ‘쉴-’에 피동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 ‘쉴기다’가 자동사로 쓰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위의 예문에서는 ‘꺾다’가 자동사로 쓰이고, 아래의 예문에서는 ‘꺾다’가 타동사로 쓰인다.
 ② 위의 예문에서는 ‘긋다’가 자동사로 쓰이고, 아래의 예문에서는 ‘긋다’가 타동사로 쓰인다.
 ③ 위의 예문에서는 ‘굴다’가 자동사로 쓰이고, 아래의 예문에서는 ‘굴다’가 타동사로 쓰인다.
 ⑤ 위의 예문에서는 ‘뺨다’가 자동사로 쓰이고, 아래의 예문에서는 ‘뺨다’가 타동사로 쓰인다.

[16~19] 기술

‘녹아웃’

해제 이 글은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체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특정 대상을 제거한 후 그 대상의 본래 기능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가설이라 한다. 공가설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하는 기술이 유전자 적중 기술이다. 유전자 적중 기술에 의해 특정 유전자가 제거된 배아 줄기세포를 정상 생물체의 수정란에 착상시키면 키메라 생물체가 태어난다. 그리고 키메라 생물체끼리 교배를 반복하면 특정 유전자가 완전히 녹아웃된 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성공시킨 연구팀은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주제 녹아웃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조작 생물체를 만드는 방법 구성

- 1문단: 공가설과 녹아웃, 녹인의 개념
- 2문단: 유전자를 조작할 때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이유
- 3문단: 배아 줄기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
- 4문단: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특정 유전자가 녹아웃된 생물체를 만드는 과정
- 5문단: 쥐를 이용한 실제 연구 사례

16 내용의 개괄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3문단에서 상동 재조합 현상으로 인한 결과는 찾을 수 있지만 유전자에서 상동 재조합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누가’를 없애서 그것의 본래 기능을 찾는 방법이 공가설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신경 세포, 면역 세포, 근육 세포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5문단에서 유전자 적중 기술을 사용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로 쥐를 활용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2문단에서 우리 몸을 예로 들어 어떤 동물에서 특정 유전자 하나를 녹아웃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음을 설명하고, 이 때문에 세포 수가 매우 적은 배아 줄기세포를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7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기>에 따르면 암은 세포의 분열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다. 그런데 p53 유전자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상된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세포의 분열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이므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p53 유전자를 녹아웃하면 p53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아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③ p53 유전자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 p53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세포 분열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포가 죽지 않고 분열을 계속하여 암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p53 유전자의 녹인은 적절하지 않다.
- ②, ④ p53 유전자를 녹아웃하면 세포 내 p53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세포가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덜 받게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18 개념의 추론적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키메라 생물체와 정상 생물체를 교배하여 얻은 생물체 중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배아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생물체이다. ㉠은 하나의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인 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은 원하는 유전자가 녹아웃된 생물체끼리의 교배 과정을 반복하여 얻어진, 특정 유전자가 완전히 사라진 개체이므로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성인 개체라고 할 수 있다.

19 내용의 구체적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키메라 쥐와 정상 쥐인 흰 쥐의 교배를 통해 얻은 쥐끼리 교배하여 얻은 쥐이다. 그러므로 키메라 쥐와 정상 쥐를 교배하여 얻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배아 줄기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없애 만든 것이므로 상동 재조합 현상을 활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에 착상시킨 수정란은 특정 유전자를 없앤 배아 줄기세포가 주입된 것이므로 ㉠은 대리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는 키메라 쥐이므로 두 종류의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 ④ 키메라는 두 종류의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기 때문에 태어나는 후손 절반의 유전자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배아 줄기세포에서 유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약 절반의 확률로 태어난 ㉠의 유전자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배아 줄기세포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23] 인문

‘언어학자들은 은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해제 은유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려는 여러 언어학자들의 관점과 각각의 입장을 서술한 글이다. 촘스키의 ‘선택 제약’의 관점에서부터 적합성 이론, 치환 이론과 유사성 이론, 상호 작용 이론, 개념 이론, 맥락 이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은유의 구조를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밝히려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주제 은유의 의미 구조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관점

구성

- 1문단: 은유에 대한 촘스키의 관점과 적합성 이론에서의 은유의 경제성
- 2문단: 은유에 대한 관점 - 치환 이론과 유사성 이론
- 3문단: 은유에 대한 관점 - 상호 작용 이론
- 4문단: 은유에 대한 관점 - 개념 이론
- 5문단: 은유에 대한 관점 - 맥락 이론

20 글의 핵심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은 3문단의 ‘그는 두 관념이 ~ 여과 작용으로 규정했다.’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므로 독자의 수준에 따라 원관념과 매체 관념이 각각 ‘독자적으로’ 해석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1문단의 ‘그에 의하면 ~ 서술어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㉒은 1문단의 ‘즉 한 맥락 안에서 ~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㉓은 2문단의 ‘여기서 갈라져 나온 ~ 지나지 않게 된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㉕은 5문단의 ‘구체적 맥락 없이는 ~ 그들은 말한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21 글의 세부 정보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3문단의 ‘블랙은 ~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한다.’와 ‘그는 이러한 작용에서 ~ 설명한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상호 작용 이론의 입장은 은유적 진술을 치환 이론이나 유사

성 이론에서처럼 독자적 의미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 독자적 의미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의미를 잃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② 상호 작용 이론에서 원관념과 매체 관념을 나눈 것은 리처즈이며, 그는 원관념과 매체 관념을 연결하는 것이 독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㉔의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③ 상호 작용 이론이 치환 이론과 유사성 이론을 비판한다는 사실은 3문단의 첫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㉔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 ④ 상호 작용 이론에서 은유적 진술이 여과 장치로서 하는 일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22 관련 자료에 대한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보기>에 의하면 은유적 표현은 프레임에 의해 감추어진 의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프레임에 그 의도가 감춰진다는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프레임은 ~ 그 안에 고정시킨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기>의 ‘우리의 사고는 ~ 그 안에 고정시킨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기>의 ‘인지 언어학의 관점에서는 ~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과 ‘자원’이라는 단어의 결합에는 사람을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 보는 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⑤ <보기>의 ‘어떤 종류의 ~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조정’을 ‘군살 빼기’라고 하는 표현에는 특정한 사람을 쓸데없이 덧붙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그 필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1문단의 적합성 이론에 따르면 은유와 대략적 표현은 발화의 명제 형식이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측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지만 적합성 측면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서로 닮았으므로, 선지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의 ‘예를 들어 ~ 어긴 것이 된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은유에 대한 ~ 바꾸어 놓는 비유법이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3문단의 ‘예를 들어 ~ 상호 작용적이라고 설명한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5문단의 ‘은유의 의미는 ~ 지닌다는 것이다.’ 부분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24~26] 예술

‘파노프스키의 도상학과 뒤러’

해제 이 글은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의 특징과 의의를 소개하면서 그의 방법론을 각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의 도상학에 따라 뒤러의 〈멜랑콜리아 I〉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주제 파노프스키의 도상학과 뒤러의 〈멜랑콜리아 I〉의 특징

구성

- 1문단: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의 특성과 각 단계별 특징
- 2문단: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으로 분석한 〈멜랑콜리아 I〉
- 3문단: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으로 살펴본 〈멜랑콜리아 I〉의 의미
- 4문단: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의 의의

24 세부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3문단을 보면, 주위에 널려 있는 지적 활동의 도구들은 작품 속 인물이 나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위에 널려 있는 지적 활동의 도구들은, 멜랑콜리아의 나태하고 쉽게 화를 내는 부정적 모습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보면, 멜랑콜리아의 날개는 존재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와 다르게 멜랑콜리아의 개념이 재해석된 것은 당시 사회의 정신적 경향성인 신플라톤주의를 제시한 피치노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을 보면, 부릅뜬 눈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은 게으른 것이 아니며, 미술가, 수학자로서의 뒤러가 갈구했던 이상과 그 좌절이 드러난 정신적 자화상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을 보면, 벽에 그려진 마방진은 건축과 목공 일이 수학에 기반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건축가나 화가는 재료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작 행위를 하므로 세계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한 절대자에 비견할 만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글의 핵심 정보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파노프스키가 재해석된 멜랑콜리아를 당시 사회의 정신적 경향과 연결하려고 했던 것은, 작품 속에서 당시 동시대인이 공유한 인간 내면의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을 찾아야만 아

이코놀로지의 단계를 수행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작품 속에서 상징적 가치를 찾는 것은 아이코놀로지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작품 속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찾는 것은 아이코놀로지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작품의 주제를 찾는 것은 아이코노그래피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작품 속 대상의 사실적 의미를 찾는 것은 전 아이코노그래피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1문단을 보면, 당시 사회 전반에 나타난 인식의 경향성에 따라 작품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이코놀로지의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보면, 그림의 표현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전 아이코노그래피의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을 보면, 그림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전 아이코노그래피의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을 보면, 그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아이코노그래피의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림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 전 아이코노그래피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신 앞에 피조물로 인식되었던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주도권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한 것은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발견되는 사실적인 요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7~30] 사회

‘근로장려세제(ETC)와 기초생활보호제도’

해제 이 글은 근로자의 노동 시간 선택에 관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호제도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글이다. 기초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의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주제 근로장려세제(ETC)와 기초생활보호제도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

구성

- 1문단: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호제도
- 2문단: 여가-소비 모형의 가정
- 3문단: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을 때의 선택
- 4문단: 기초생활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제약의 변화
- 5문단: 기초생활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대체효과
- 6문단: 기초생활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효과
- 7문단: 근로장려세제의 보조금 지급 방법
- 8문단: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노동 시간 변화

27 논지 전개 방식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글은 여가와 소비에 관한 모형을 설정하여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호제도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복수의 이론이 등장하지 않으며 특정 이론의 한계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 ② 복수의 경제 제도를 비교하고 있을 뿐 시간에 따른 경제 제도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경제적 개념이 경제 주체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경제 구조 혹은 그것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28 글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여가-소비 모형은 소득과 가용 시간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득효과가 발생한 경우 여가 시간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노

동 시간은 감소한다.

- ②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변화는 여가와 소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득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도 일으킨다.
- ③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면 여가 시간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
- ④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되지 않는다.

29 글의 핵심 정보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일정 소득을 보장하므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A는 추가로 벌어들인 근로 소득만큼 보조금 수령액이 줄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A는 노동 시간을 늘려도 소득이 전혀 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A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0과 같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총 가용 시간은 보조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H로 일정하다.
- ② 기초생활보호제도로 인해 A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0과 같게 된 것일 뿐,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W로 일정하다. 또한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도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하지 않으며 0으로 일정하다.
- ③ 기초생활보호제도는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시간이 늘어 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보조금의 지급액은 줄어든다.
- ④ A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은 기초생활보호제도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기 때문이지 여가와 소비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A의 선호 변화 때문이 아니다.

30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평탄 구간인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와는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즉 평탄 구간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소득은 증가하지만 여가와 소비의 상대적인 가치는 변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효과에 의한 노동 시간 감소만 나타날 뿐 대체효과는 나

타나지 않는다. 반면 기초생활보호제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한 노동 시간 감소 효과가 모두 나타나므로, 기초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노동 시간 감소 효과가 근로장려세제의 평탄 구간에서의 노동 시간 감소 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B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점증 구간에서는 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며, 이는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근로자는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를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와 소비를 모두 증가시키므로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즉 대체효과에 의한 노동 시간 증가와 소득효과에 의한 노동 시간 감소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 시간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그림을 보면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여가 시간을 $(H-L_1)$ 에서 $(H-L_2)$ 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B국 정부가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므로 효용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보기>의 그림에서 근로자의 효용 수준이 U_1 에서 U_2 로 상승한 것을 통해 B국 정부가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효용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점증 구간에서의 노동 시간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에 의한 노동 시간 증가 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한 노동 시간 감소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기>의 그림에서 여가 시간이 $(H-L_1)$ 에서 $(H-L_2)$ 로 감소하는 것을 통해 B국 정부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점증 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상대적 차이에 의해 노동 시간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평탄 구간에서는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 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나며, 점감 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에 의해 노동 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보기>의 그림을 통해 B국 정부는 점증 구간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B국 정부는 점증 구간에서는 노동 시간 증가, 평탄 및 점감 구간에서는 노동 시간 감소가 나타나며 이들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노동 시간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1~35] 현대시+고전 시가

(가) 조지훈, 「흙을 만지며」

해제 이 시는 대조적인 시어와 시구를 활용하여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다. 화자는 피비린내 나는 옥루를 떠나 흙으로 가득 찬 터전에 초가삼간을 짓고, 그곳에서 폭력과 경쟁을 상징하는 화살을 농사 도구인 호미로 바꾸어 안분지족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4연의 흙냄새는 화자로 하여금 세속에 찌들어 살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고, 화자는 대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며 사랑이 충만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1, 2연을 6, 7연으로 변주하여 전개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주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구성

- 1연: 자연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
- 2연: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 3연: 세속적 삶과 가치에 대한 거부
- 4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 5연: 대자연의 섭리와 생명력
- 6연: 안분지족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다짐
- 7연: 안분지족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풍요로움

(나) 작자 미상, 「사제가」

해제 이 작품은 언니가 아우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규방가사이다. 아우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의 속성을 빌려 노래하고 있으며, 아우가 비록 여자이기는 하지만 매우 뛰어난 인재라고 예찬하면서 아우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 나이 사십이오 네 나이 삼십이라’, ‘이녀 두고 한탄 마라’, ‘사녀 둔 네 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가와 아우의 나이나 처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쓰이기도 하였다. 또한 「조웅전」 등의 고전 소설을 읽고 비평하는 부분을 통해 당시 고전 소설을 향유했던 독자층과 작품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가진다.

주제 아우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12행: 아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 13~18행: 세월에 대한 무상함과 아우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 19~20행: 딸 둘을 둔 아우에 대한 위로
- 21~23행: 아우의 뛰어난 재능에 대한 예찬
- 24~29행: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고자 독서를 함.
- 30~35행: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아우에 대한 그리움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1연과 6연에서 ‘여기 ~고 / ~는 / ~을/를 나는 ~자.’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같이 ~르가’, ‘내 ~이 ~되면 네 ~에 ~ 불가’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아우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정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가 활용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오뉴월’의 ‘취우’, ‘구시월’의 ‘낙엽’, ‘삼월’의 ‘연자’ 등과 같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아우와의 만남을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보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독백에 가깝다. (나)에서는 아우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활용하여 아우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어쩌면 이 많은 ~이 그물을 치나’, (나)는 ‘딸은 자식 아닐소냐.’ 등의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의문형 문장을 통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더 늦기 전에 아우를 만나고 싶고, 딸 가진 아우를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32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화자가 흙냄새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B]에서는 아우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화자가 세월에 대한 무상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B]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A]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지 않고, [B]에서도 과거에 대한 애뜻함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A]에서는 자신의 지난 삶의 모습을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과거 의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B]에서는 흘러가

는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미래 지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A]에서는 ‘늙은이의 눈물’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B]에서는 타인을 탓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3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이 투영된 공간이며, ㉡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우가 머무는 공간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 모두 화자 자신이 그곳에 있기를 희망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② ㉡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은 세속적이었던 지난 삶과의 단절감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은 자신과 떨어져 있는 아우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에 해당하지만, ㉠은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공간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화살’은 ‘피비린 옥루’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시어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피비린 옥루’를 통해 당시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③ ‘마지막으로 돌아갈 이 한 줌 흙’은 궁극적으로 자연과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④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 한 그루 나무’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다.
 ⑤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서 화자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자연을 의미한다.

3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화자는 이녀를 두고 한탄하는 아우에게 자신은 사녀를 두고도 즐겁게 살아간다면 위로를 건넨다. 따라서 해당 구절에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 한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우가 딸을 두고 한탄하는 모습에서 조선 시대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③ 아우가 재능을 갖추었음에도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당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④ ‘위장강’, ‘소야란’ 등의 고사를 인용한 것에서 규방 가사의 작자층이 지적 교양을 지니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⑤ ‘조용전’ 등의 소설을 읽고 비평하는 것을 통해 당시 양반가 여성들이 소설을 향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36~39] 현대 소설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해제 이 작품은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하는 인물인 지옥을 통해 참된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지옥의 대필 행위는 말이나 글이 인간의 의도나 이념 실현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옥은 자신의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화하고 싶어 하는 코미디언 피문오, 세상을 자신의 방법으로 외곬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최상윤에 대한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청준이 자신의 문학적 작업을 두고 '자기 구제의 한 몸짓'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소설에서도 참된 자서전 쓰기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행하는 일이며,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참된 글쓰기의 의미

전체 줄거리

수많은 사람들의 자서전과 회고록을 대필하며 그럭저럭 지내 온 지옥은 실체도 없이 언어를 부리는 글쓰기에 회의를 느낀다. 결국 인기 코미디언 피문오 씨의 자서전 대필 작업을 단념하기로 하고 그에게 사죄의 편지를 부친다. 그리고 진정한 글쓰기에 대한 기대를 안고 회고록 대필을 요청한 최상윤 선생을 만나러 버스에 오른다. 산간벽지에서 오랜 세월 10만 평의 황폐한 야산을 옥토로 개간한 최상윤 선생을 만나 그의 생활과 주변사를 둘러보지만 아집에 가까운 선생의 견고한 신념을 확인하고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지옥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말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집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던 피문오 씨를 만나게 되고, 피문오 씨는 대필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며 행패를 부린다. 피문오 씨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지옥은 최상윤 선생을 떠올린다. 그리고 만인의 찬양을 받으려는 최상윤 선생에게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고백에의 용기가 없음을 깨닫는다. 피문오 씨가 돌아가고 홀로 남은 지옥은 '자서전들 쓰십시오.'라는 환청에 넋을 빼앗긴다.

36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이 소설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의 내막을 모두 서술하는 전지적 시점을 보이고 있다. 서술자는 주로 지옥의 시각에서 일련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주관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지옥의 가치관이나 심리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지 않다.

-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는 있으나,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이 소설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형태인 액자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7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지옥은 글을 쓰는 의미를 찾지 못하며 '피문오 씨의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옥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며 생계를 유지했던 만큼, 만약 일을 그만둔다면 '4, 5년 가까이 지탱해 온 호구지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나가는 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옥은 '초조'를 느끼게 되나, 결국 피문오 씨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은 아무리 글을 써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전 아직 확실한 작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게 좀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라는 지옥의 말로 볼 때, 지옥이 '안타까운 심경'을 보인 것은 회고록 대필을 원하는 최상윤 선생의 바람과 달리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③ '뭐가 된지 아무래도 생각이 한 가닥으로 모아지지를 않았 다.'라는 진술로 볼 때, 지옥이 '어수선했던 상념'을 안고 있는 이유는 회고록 대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처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④ '추궁하듯 그를 건너다보고 있는 피문오 씨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말없이 탄전스러운 얼굴만 하고 앉아 있는 사내가 공연히 마음에 지퍼 왔기 때문이었다.'라는 진술로 볼 때, 지옥이 '사지가 움츠러드는 기분'을 느낀 것은 피문오와 점퍼 사내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⑤ '불안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쪽의 동요를 엿보이게 하지 않는 일과, 그럴수록 더욱 언동을 정중하게 갖는 길뿐'이라는 진술로 볼 때, 지옥이 '정중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한 이유는 '동요'를 드러내지 않은 채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8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지옥은 거짓으로 말을 부려야 했던 피문오의 자서전 대필을 단념하기로 결정하고 최상윤을 만나러 간다. 이는 ‘소박하고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통해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옥은 자신이 대필한 회고록과 자서전의 인물들이 ‘원고지의 말들’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회고록과 자서전의 내용과 인물들의 삶의 실체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옥은 자신의 글쓰기 작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 ② 지옥은 피문오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이는 피문오가 ‘지옥이 동원해 온 말들과는 인연이 없는 위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옥은 피문오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거짓의 말을 부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 ④ 지옥은 최상윤의 신념을 두고 ‘미래가 개입되고 있는’ 신념이라고 평가하며 ‘참다운 자서전’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이는 ‘만인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펴 실현하고 완성해 내려는 주장’을 담은 자서전은 맹목적으로 미래를 예찬하는 방식의 쓰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⑤ 지옥은 다른 사람의 회고록이나 자서전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생애를 자신의 것으로 살아 보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본질과 유리된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필로나마 인생을 성찰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함부로 나뒹굴고 있’다는 점에서 ㉠는 피문오의 충동적인 성격을 부각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한편 ㉡가 자서전 쓰기를 그만둘 것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옥의 확고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지옥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부각하는 소재로는 볼 수 없다.
- ② 피문오가 지옥을 ‘압도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나뒹굴고 있’는 ㉠는 자서전 작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피문오가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한편 ㉡는 자서전 작업을 그만둘 것이라는 의사를 정중하게 표현한 것일 뿐, 피문오의 행동에 대한 지옥의 불만을 드러낸 소재로는 볼 수 없다.
- ③ 지옥은 피문오의 자서전 대필 작업을 하면서 그의 실체를 인식하고 자서전 쓰기를 단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옥이 ㉠를 통해 피문오의 무례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는 지옥이 피문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된 소재로 볼 수 있다. 한편 피문오가 ㉡를 갖고 불시에 지옥을 찾아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지옥의 처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피문오가 지옥의 처지에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 소재로는 볼 수 없다.
- ⑤ 피문오가 지옥을 급히 찾아온 것은 ㉡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는 피문오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지옥이 자서전 작업을 그만둘 것을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옥의 망설임을 보여 주는 소재로는 볼 수 없다.

39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지옥은 최상윤의 회고록 대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에 ‘불이 환히 밝혀져 있’는 채 ‘함부로 나뒹굴고 있’는 ㉠를 보고 ‘엉뚱스러운 사태’가 벌어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지옥의 당혹감을 자극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한편 피문오의 지옥에게 ㉡를 내밀며 자신에게 써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문오가 ‘주인 없는 방에 들어와 있는 데 대한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압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는 지옥이 자서전 작업을 그만둘 것에 대한 피문오의 불쾌함을 촉발한 소재로 볼 수 있다.

[40~4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김원전」

해제 이 작품은 작자, 창작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다양한 설화가 집대성되어 완성된 전기 소설이다. 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김원이 황제의 명을 받아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고 용왕의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용녀와 함께 신선이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이 소설은, 이물 탄생 설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용궁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이본(異本)이 약 20여 종임을 볼 때, 당대 독자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주제 지하국 아귀를 퇴치하고 공주를 구한 김원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김원은 김수와 그 부인 유씨 사이에서 둥근 모양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가 된다. 그 후 김원은 병마대원수 도총독을 제수받고 괴물에게 납치된 세 공주를 구하기 위하여 지하국으로 내려가서 괴물을 소탕하고 세 공주와 부녀자들을 구해 주지만 김원의 공을 시기한 부원수가 줄을 끊고 구멍을 메워 버린다. 황제는 김원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내지만 찾지 못하고, 셋째 공주는 김원의 집으로 가 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한편 김원은 굴속을 헤매다가 용왕의 아들을 구해 주고 용궁에서 용녀와 결혼한다. 몇 년 후 김원은 용왕으로부터 연적을 선물로 받아 인간 세계로 나온다. 그러나 김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 연적을 노린 주점 주인에게 피살된다. 이때 용녀는 고양이로 변해 연적을 물고 달아나 셋째 공주에게 연적을 전해 준다. 이후 선녀가 나타나 주점 주인이 김원을 죽인 사정을 고하고, 황제는 주점 주인을 참수하고 선녀의 지시대로 김원을 환생시킨다. 황제는 김원을 부마로 삼아 좌승상 겸 동백후 부마도 위에 봉하고, 용녀를 정숙공주에 봉한다. 그 후 김원과 공주와 용녀는 함께 즐거움을 누리다 함께 백일 승천(白日昇天)한다.

40 소설의 서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오직 김 승상 부부 원을 생각하고 화기 돈연한지라’, ‘승상과 부인이 부중에 돌아오니 가중이 적용하여 심사 새로이 비창한지라.’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과 조응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수박 같은 것이 구멍이 있거늘’이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시 살피본즉 수박 같은 것이 구멍이 있거늘, 먹을 것을 넣으니 받아먹고 점점 자라매 날이 못하여 크기가 동아만 하였는지라. 그것이 이름이 없매 모양이 둥근 고로 이름을 ‘원’

이라 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서술자가 인물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원수 이에 홍갑선을 들고 문 앞에 나아가 한 번 부치니 문 지키는 요괴들이 다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거늘’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원수 바로 대청으로 치달으니 구두 아귀 평상 위에 누웠거늘, 홍갑선을 들어 한 번 부치니 아귀 몸을 움직여 일어나다가 도로 쓰러지는지라.’ 등과 같이 원수가 아귀와 싸우는 장면을 통해 역동성과 긴박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4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향기로운 음식과 오음육류가 내외 전각에 휘황찬란하여 즐기는 소리 진동하되 오직 김 승상 부부 원을 생각하고 화기 돈연한지라.’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놀라고 한심하여 급히 내어 버리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되’, ‘점점 자라 방 안에 가득하니 ‘넓은 데로 옮기라.’ 하여’ 등의 내용을 통해 승상은 꿈자리를 괴이하게 여겨 당장 김원을 내어 버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내 과연 천자의 명을 받아 삼위 공주를 모시러 왔으니 요괴를 죽이고 공주를 돌아가시게 하리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원수는 대명 황제와 함께 공주를 구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대명 황제의 명을 받고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요괴들의 소굴에 잠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원수 이미 비수를 들어 바로 그놈의 가슴을 찌르니 피 돌지어 흐르며 식경이나 뛰놀다가 거꾸러지거늘’이라는 내용에서 원수가 아귀와 치열한 결투를 벌이다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공주와 모든 여자들은 원수가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 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뿐, 은금보패를 원수에게 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이 글에 등장하는 시비는 승상 부부의 명을 받아 후원에 가서 원이 인간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이를 승상 부부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김원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활판본에서는 ‘시비 옥향’이 등장하여 김원을 돌봐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시

비 옥향'과 같이 김원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판본과 차이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점점 자라 방 안에 가득하니 '넓은 데로 옮기라.' 하여 원을 뒷동산 월정각에 두고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여 저의 먹는 대로 주니, 원이 크기 삼 칸 방이 터지며 먹는 것은 거의 한 섬 밥을 먹으니 승상이 큰 심회 되고 상하노소 비복이 근심으로 지내더라.'에서 원이 성장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③ 경판본에서는 김원이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한 남두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불초자 전생에 죄가 중하와 괴형을 쓰고 인세에 나'라고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 ④ '원수 바로 대청으로 치달으니 구두 아귀 평상 위에 누웠거늘, 홍갑선을 들어 한 번 부치니 아귀 몸을 움직여 일어나다가 도로 쓰러지는지라.'에서는 김원이 변신술을 쓰지 않고 직접 아귀와 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경판본에서는 공주의 도움을 받아 김원이 괴물을 무찌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공주의 도움 없이 김원이 자력으로 괴물들을 모두 무찌르고 공주와 여인들을 구해 내고 있다.

[43~45] 극

윤대성, 「출세기」

해제 1976년에 실제 발생했던 광부 매몰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무너진 갯에서 16일 동안을 견딘 끝에 극적으로 구출된 광부인 김창호의 출세와 몰락 과정을 다루어 상품으로서의 효용성만을 중시하는 대중 언론의 속물적 생리를 적나라하게 부각하고 있다. 또한 대중 언론에 의해 일약 영웅이 되었다가 다시 외면당하는 인물을 통해 대중 언론의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멸시키는가를 예리하게 고발하고 있다.

주제 대중 언론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갯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매몰된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 매니저 미스터 양을 만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돈을 탕진하던 김창호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언론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다시 탄광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김창호는 아내가 사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한다. 이때 광업소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김창호는 사고 현장에서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인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은 김창호를 외면한 채 현장에서 철수한다. 모두가 떠난 현장에서 김창호는 이성을 잃은 채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다고 소리친다.

43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4. 기자 회견 석상', '22. 어느 방', '23. 광산촌', '24. 기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공간을 기준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공간은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14. 기자 회견 석상'은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공간이며, '22. 어느 방', '23. 광산촌'은 인물이 소외를 겪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물의 심리나 행동 등을 보여 주는 지시문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지시문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단상', '카메라', '곡괭이' 등과 같이 무대 장치나 소품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희극적으로 과장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⑤ 대중의 관심에서 떨어진 김창호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방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동일한 대사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반복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4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광부 2’는 모두가 김창호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김창호에 대한 부러움을 직접 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갯내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 하는 김창호에게 ‘가 보게, 뭐 하러 들어오나? 이 흙구덩이 속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부 2’가 김창호를 따르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치의’는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김창호의 기자 회견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력이 약화된 김창호를 위해 ‘선글라스’를 씌워 주거나 당황하는 김창호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이다.
- ② ‘홍 기자’가 기자 회견 석상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쫓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 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라고 말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미스터 양’은 그전처럼 다시 일하자며 관심을 끌려는 김창호를 귀찮아하며 괘시하고 있다. ‘시끄러!’, ‘그게 노래요? 편도선 앓는 소리지.’ 등의 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광부 1’은 갯내에 들어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창호의 말에 ‘자네 얼굴을 봐. 손을 보게. 우리하곤 빛깔이 달라졌어.’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김창호가 광부인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더 이상 그가 광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방송국’은 대중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며, ‘푸른 초원’은 순수하고 소박한 행복이 있는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김창호는 ‘푸른 초원’에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대중 매체의 주목을 받으면서 언론에 의해 상품화된 존재로 전락한다. 이후 김창호는 언론으로부터 소외되고, ‘방송국’의 주목을 받기 위해 처절한 모

습을 보인다. 따라서 그가 ‘방송국’의 주목을 받는 삶으로 회귀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김창호는 ‘푸른 초원’으로 상징되는 순수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아 출세하면서 물질주의적 세태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 김창호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땅속’으로 들어가 신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아 출세하고 싶은 비정상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 ③ 김창호는 ‘방송국’의 관심을 받아 크게 성공하였지만, ‘가족’을 등진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비참한 처지가 된다. ‘가족’이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이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김창호의 비극적 삶을 부각하는 것이다.
- ④ 매몰된 갯내에서 16일 만에 구출되어 일약 영웅이 된 김창호는 ‘상품 가치’가 사라지자 ‘방송국’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는 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은 사회 성원이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의 소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 현실에서의 언론은 ‘상품 가치’가 있을 때만 주목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대중 매체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다.